
2016년 기준 경상북도 및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보고



2016년 기준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

I 조사개요

- 조사내용 : 5개 부문* 45개 문항(공통항목 35, 특성항목 10)
* 5개 부문 : 가구와 가족, 교육, 안전, 환경, 문화와 여가
- 조사일시 : 2016. 8. 29. ~ 9. 12.(15일간)
- 조사대상 : 울진군 800개 표본가구(가구주 및 만15세 이상 가구원)
- 조사방법 : 조사원을 통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II 주요 조사결과

[가구와 가족]

- (선호하는 가족형태) 「유자녀부부」 52.7%, 「부모님과 함께」 21.3%의 순
- (부모와 동거를 선호하는 이유) 「당연한 의무」 65.6%, 「가족 간 화합」 17.5%의 순
- (전반적 가족관계 만족도) 「만족한다」 62.6%
- (부모 생활비 제공) 「부모 스스로」 54.7%, 「모든 자녀」 17.4%의 순

[교육]

- (전반적 학교생활 만족도) 대학>초등>중고등학교의 순으로 높음
- (학교교육의 효과) 「지식 기술습득」 44.6%이 가장 높고,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34.0%로 가장 낮음

[환경]

- (환경상태 평가) 대기의 질, 강·하천·호수의 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전 분야에 걸쳐 65%이상 긍정적인 평가
- (환경오염방지 노력) 환경보호를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이 66.9%, 가장 낮은 분야는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 참여」로 33.4%

[안전]

- (우리사회 안전상태 변화) 2년 전, 2년 후 모두 「변화없다」가 각각 48.4%, 42.6% 차지
- (우리사회 분야별 안전상태) 「식량안보」, 「화재」, 「교통이용」의 순으로 높음
 - 불안하다 비율이 높은 분야 「신종점염병」, 「국가안보」, 「범죄위험」의 순
- (야간보행의 두려움) 「사는 동네에 야간보행이 두려운 곳이 있다」 23.15%
 - 이유로 「인적 드ಡ」 46.07%, 「가로등 미설치」 44.97% 등이 꼽힘
-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유전자변형/가공/수입산 식품에 대해 여전히 불안함
- (군민들의 평소 준법수준) 「평소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 82%
- (공공질서 준수수준) 「차례지키기」 58.7%로 가장 높고, 「공공장소 정숙」 38% 가장 낮음
- (동네 주민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 70.4%

[문화와 여가]

- (문화향유)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 관람한 인구 비율은 39.8%
- (지역 문화예술시설 만족) 「만족한다」는 비율은 39.1%
- (지역 필요 문화시설) 「영화관」 46.11%, 「문화·체육센터」 39.96% 순
- (여행경험) 국내여행은 44.0%, 해외여행은 10.4%
- (선호하는 여가활동) 시간,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선호하는 활동은 「여행」 62.6%
- (생활속 시간압박) 생활이 바쁘거나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비율은 평일 62.2%, 주말 54.7%
-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유배우자 43.9%는 배우자의 직업이 있음
- (정보화의 활용) 군민의 37.7%는 소셜네트워크에 가입
- (전자상거래 활용) 「TV홈쇼핑」, 「물품구매」, 「예약 및 예매」를 위해 전자상거래경험비율 각각 23.8%, 26.6%, 21.9%

III

향후 계획

- 결과 공표 : 2017. 12월중(군 홈페이지 공개)
- 통계DB 반영 : 2017. 12월중

2016년 기준 울진군 사회조사 결과 요약(비교)

I. 가구와 가족

■ (선호하는 가족형태)	<2014>	<2016>
▶ 부모님과 함께	26.2%	21.3%
▶ 1인가구(독신)	6.8%	9.5%
▶ 유자녀부부	53.8%	52.7%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	<2014>	<2016>
▶ 당연한 의무	60.2%	65.6%
▶ 경제적 도움	4.8%	9.7%
▶ 가족간 화합	30.8%	17.5%
■ (가족관계 만족도)	<2016>	
▶ 배우자와 관계	81.4%	
▶ 자기부모와 관계	74.9%	
▶ 전반적 가족관계	62.6%	
■ (부모 생활비 부담)	<2016>	
▶ 장남, 며느리	6.5%	
▶ 부모님 스스로	54.7%	

II. 교육부문

■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 경상북도 전체	<2014>	<2016>	
▶ 미취학자녀(만원)	10.6	14.0	
▶ 초등학생(만원)	29.4	35.5	
▶ 중학생(만원)	31.7	39.1	
▶ 고등학생(만원)	30.6	37.0	
■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 경상북도 전체	<2014>	<2016>	
▶ 부모도움	53.7%	58.8%	
▶ 대출	12.8%	9.7%	
▶ 자녀스스로	4.2%	3.8%	
▶ 장학금	25.1%	26.1%	
■ (문자해독율) - 경상북도 전체	<2014>	<2016>	
▶ 비문해자수	98천명	73천명	
▶ 15세이상 인구	2,350천명	2,367천명	
▶ 비문해율	4.2%	3.1%	
■ (학교생활 만족비율)	<교육내용>	<학교시설>	<전반적 생활>
▶ 초등학교	55.5%	52.4%	60.0%
▶ 중고등학교	42.3%	38.0%	53.5%
▶ 대학교	59.7%	61.7%	61.3%

(학교교육의 효과)	<효과있다>	<효과없다>
▶ 지식, 기술습득	44.55%	vs 4.93%
▶ 인격 형성	40.33%	vs 6.57%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34.01%	vs 8.02%
▶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34.08%	vs 9.45%

III. 환경

(거주지 환경이 좋다는 비율)	<2014>	<2016>
▶ 대기의 질	83.5%	77.5% ↘
▶ 강, 하천, 호수의 질	80.4%	75.3% ↘
▶ 토양	73.2%	71.2% ↘
▶ 소음, 진동	76.1%	67.6% ↘
▶ 녹지환경	75.9%	68.2%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비율)	<2014>	<2016>
▶ 대중교통 이용	42.1%	44.2% ↗
▶ 재활용품 분리배출	65.9%	66.9%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65.7%	66.1% ≈
▶ 합성세제사용 줄이기	53.9%	52.5% ↘
▶ 1회용품 미사용	57.5%	54.2% ↘
▶ 에너지절약형 제품구입	54.1%	57.6% ↗
▶ 환경 및 자연보호운동 참여	37.9%	33.4% ↘

IV. 안전

(우리사회의 전반적 안전상태)	<2014>	<2016>
▶ (2년전과 비교) 안전해졌다	30.8%	27.6% ↘
▶ (2년후 예상) 안전해질 것이다	35.9%	32.1% ↘

(우리사회의 분야별 안전상태) - 안전하다 비율	<2014>	<2016>
▶ 국가안보	28.2%	24.3% ↘
▶ 자연재해	30.7%	22.8% ↘
▶ 건축물, 시설물	33.7%	25.5% ↘
▶ 교통이용	34.2%	29.1% ↘
▶ 화재	35.5%	33.7% ↘
▶ 식량안보	39.8%	50.8% ↗
▶ 정보보안	21.2%	19.4% ↘
▶ 신종전염병	20.0%	15.7% ↘
▶ 범죄위험	22.8%	20.0% ↘

(야간보행의 두려움)	<2014>	<2016>
▶ 두려운 곳이 있다	20.4%	23.15% ↗
● (원인) 가로등이 없다	58.7%	44.97% ↘
● (원인) 우범지역	2.5%	5.15% ↗
● (원인) 인적드롭	35.4%	46.07% ↗

■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 안전하다는 비율			
▶ 친환경식품	62.9%	↗	72.21%
▶ 국내산식품	56.6%	↗	66.83%
▶ 수입산식품	12.9%	↗	24.42%
▶ 가공식품	14.2%	↗	20.05%
▶ 유전자변형식품	13.1%	↗	17.93%
■ 준법수준 : 잘지킨다(아주 잘지킨다 + 비교적 잘지킨다) 비율	<2014>		<2016>
▶ 자신의 평소 준법수준	73.0%	↗	82.0%
▶ 우리나라 국민들의 공공질서 준수수준			
● 차례지키기	53.9%	↗	58.7%
● 거리환경질서	41.3%	↗	43.4%
● 보행질서	45.3%	↘	44.0%
● 교통질서	47.1%	↘	40.0%
● 공공장소 금연	43.0%	↗	46.0%
● 공공장소 정숙	39.7%	↘	38.0%
■ (일상생활상 두려움)	<두려움>		<두렵지않음>
▶ 혼자 집에 있을 때	5.7%	vs	78.4%
▶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8.5%	vs	71.8%
▶ 혼자 택시, 지하철을 탈 때	11.4%	vs	65.5%
■ (범죄피해 두려움)	<두려움>		<두렵지않음>
▶ 나자신	12.3%	vs	62.5%
▶ 배우자	18.6%	vs	53.1%
▶ 자녀	41.5%	vs	30.5%
▶ 부모	35.1%	vs	35.6%
■ (동네사람들에 대해 평소 느낀 점)	<그렇다>		<그렇지 않다>
▶ 서로 잘 알고 지낸다	70.4%	vs	9.5%
▶ 동네일을 자주 이야기한다	58.9%	vs	14.7%
▶ 어려운 일은 서로 돋는다	62.6%	vs	11.0%
▶ 동네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53.4%	vs	18.6%
▶ 동네아이들을 보호한다	67.7%	vs	8.1%
▶ 범죄발생시 신고한다	73.32%	vs	5.3%
▶ 범죄순찰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46.2%	vs	24.8%

V. 문화와 여가

■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관람)	<2014>		<2016>
▶ 경험한 적 있다	43.1%	↘	39.8%
▶ 만족한다 비율	71.4%	↗	73.54%
■ (문화예술행사 정보입수 방법)	<2014>		<2016>
▶ TV	4.5%	↘	11.41%
▶ 인터넷	39.6%	↘	30.36%
▶ 입소문	18.0%	≈	18.07%
▶ 기타	37.9%	↗	40.16%

	<2014>	<2016>
■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27.6%	49.4%
■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예술시설)	<2014>	<2016>
▶ 공연장	9.6%	26.86%
▶ 영화관	16.5%	46.11%
▶ 야외음악당, 박물관	5.0%	9.74%
▶ 도서관	4.2%	11.16%
▶ 복지회관	16.5%	33.16%
▶ 문화체육센터	27.4%	39.96%
▶ 주민자치센터	11.0%	16.96%
■ (지난 1년간 여행경험)	<국내여행>	<해외여행>
▶ 여행경험이 있다	43.96%	vs 10.36%
■ (여가생활)	<만족한다>	<만족않음>
▶ 여가생활만족도	34.2%	vs 17.1%
	<1위>	<2위>
▶ 여가생활 불만족사유		<3위>
	경제적부담	시간부족
		건강문제
■ (희망 여가활용방법)	<2014>	<2016>
▶ 여행	19.6%	62.6%
▶ 문화예술관람	7.3%	27.3%
▶ 스포츠활동	7.7%	16.8%
▶ 휴식	12.4%	19.8%
▶ 사교관련일	11.9%	21.4%
■ (정보화의 활용)	<2014>	<2016>
▶ 이메일	34.4%	34.0%
▶ 홈페이지	9.3%	7.4%
▶ 블로그	8.8%	8.3%
▶ 인터넷동호회가입	13.8%	12.1%
▶ 소셜네트워크	39.2%	37.7%
■ (전자상거래 활용)	<2014>	<2016>
▶ TV홈쇼핑	21.92%	23.8%
▶ 증권	2.82%	4.0%
▶ 물품구매	26.42%	26.6%
▶ 예약 및 예매	17.85%	21.9%

2016년 기준 울진군 사회조사 특성항목 결과

1.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 울진군의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은 「매우높다」 5.49%, 「높다」 36.34%, 「보통이다」 48.38%, 「낮다」 7.73%, 「매우낮다」 2.06%로 응답함

2. 군정정보 획득 매체

- 군정정보를 획득하는 주요 매체로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가 40.7%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 및 이장을 통해서」 24.4%, 「울진군 홈페이지」 18.35%의 순

3. 울진군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

- 울진군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53.83%, 「지역 경제 활성화」 41.09%,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사업」 38.43% 순

4. 관광명소

- 울진을 자랑할 수 있는 관광지로 「울진금강소나무숲길」 36.74%, 「온천(덕구, 백암)」 30.62%, 「성류굴」 13.6%, 「불영계곡」 13.18%, 「자연휴양림(통고산, 구수곡)」 4.19% 순

5. 노인부양방향

- 군민이 생각하는 노인부양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부, 사회(노인요양원 등)」 52.65%, 「본인 스스로 해결(연금, 적금)」 34.84%, 「가족이 부양」 11.72%로 나타남

6. 거주지역 주차공간

- 거주지역 주차공간에 대해서 「주차공간에 대해 매우 충분하다」 9.54%, 「어느 정도 충분하다」 34.4%, 「보통이다」 29.6%, 「약간 부족하다」 16.52%, 「매우 부족하다」 9.94%로 응답함

7.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점

- 만 65세 이상 군민 중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점으로 「건강문제」 36.49%, 「경제적 문제」 35.58%, 「소일거리 없음」 14.07%, 「외로움·소외감」 9.95%, 「노인복지시설 부족」 1.95%, 「가족으로부터 푸대접」 0.25% 순

8. 지역축제참여

- 군민의 54.89%는 울진군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한 적이 있음
 - 「울진대개와 붉은대개 축제」 69.42%, 「울진금강송 송이축제」 39.72%, 「울진 워터피아 페스티벌」 37.66%, 「성류문화제」 22.5%로 나타남

9. 전통시장개선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상인의 친절의식 및 경영마인드 제고」 32.62%, 「불거리 행사 및 쉼터 확충」 20.29%, 「교통편의 및 주차시설 확보」 17.4%, 「가격정찰제 실시」 14.18%, 「신용카드 사용 등 거래 형태 개선」 7.51%, 「상품배달 등 서비스 개선」 5.94% 순

10. 교육환경문제

- 울진군 교육환경의 문제점으로 「전반적인 정보접근성 부족」 18.44%, 「사설 교육기관(임시전문)이 부족」 16.18%, 「테마체험 활동 및 사회참여교육 프로그램 부족」 16.08%, 「공교육기관의 부실」 15.83% 「문화인프라 부족(공연장, 박물관 등)」 12.64%, 「제도적 지원 미흡(학비 및 급식비 등)」 8.82%로 나타남

2016년 기준 경상북도 사회조사 결과

| 가구와 가족

1. 선호하는 가족형태

「부모님과 함께」를 선택한 비율은 21.7%로 2년전 대비 감소한데 비해 「유자녀 부부」를 원하는 비율은 증가하여 독립가족에 대한 선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선호하는 가족형태로 「유자녀 부부」 59.6%가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모님과 함께」 21.7%, 「무자녀부모」 10.7%, 「1인가구(독신)」 8.0%의 순
- '14년에 비해 「유자녀부부」를 선호하는 비율은 9.1%p 증가한데 비해 「부모님과 함께」를 선택한 비율은 6.0%p 감소
- 성별로 응답비율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님과 함께」를 응답한 남자의 비율이 25.3%로 여자 18.5%보다 6.8%p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 선호하는 가족형태는, 「부모님과 함께」는 29세이하 33.4%로 가장 높았고 「1인가구(독신)」도 29세이하 13.7%, 「유자녀부부」 30~39세 71.2%, 「무자녀부부」 60세이상 15.2%로 나타남

선호하는 가족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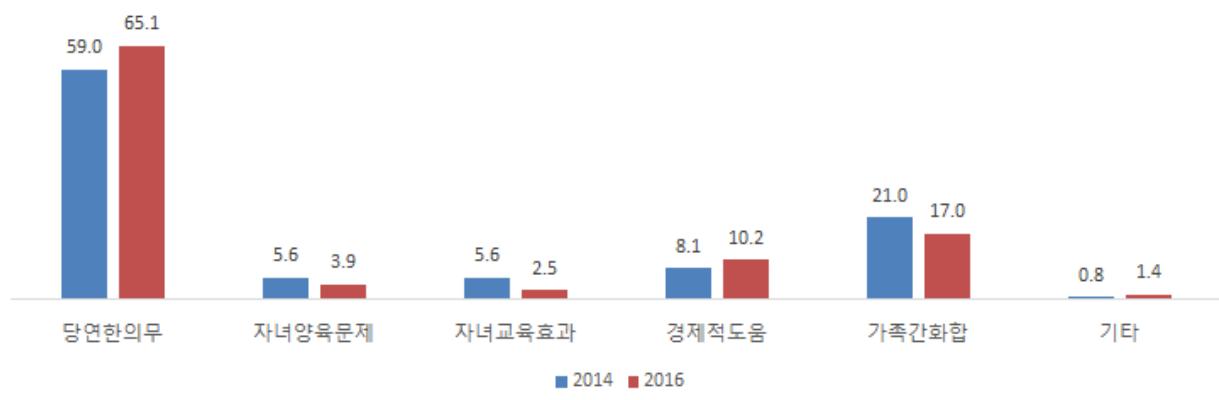
구분	부모님과 함께	1인가구(독신)	무자녀부부	유자녀부부	기타
2014	27.7	9.1	12.6	50.5	0.1
2016	21.7	8.0	10.7	59.6	0.1
(증감)	-6.0	-1.1	-2.0	9.1	-0.1
남	25.3	6.3	10.5	57.9	0.1
여	18.5	9.5	10.8	61.1	0.1
29세이하	33.4	13.7	5.9	46.9	0.1
30~39세	15.7	8.2	4.9	71.2	0.0
40~49세	17.3	6.5	5.6	70.6	0.1
50~59세	19.9	6.5	11.3	62.3	0.1
60세이상	22.4	7.6	15.2	54.7	0.0

2.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

「부모와 함께」 사는 이유로 「당연한 의무」, 「가족간 화합」, 「경제적인 이유」의 순으로 높음

- 「부모님과 함께」 사는 이유로 「당연한 의무」가 65.1%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족간 화합」 17.0%, 경제적 도움 10.2%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보면, 「당연한 의무」는 60세이상(77.1%)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양육문제」는 30~39세(11.6%)에서, 「경제적 도움」은 29세이하(23.7%)에서, 「가족간 화합」도 29세이하(26.9%)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년전에 비해 「당연한 의무」라고 응답한 비율은 6.1%p 증가한데 비해 「가족간 화합」 4.0%p 감소하였고, 「경제적 도움」은 2.1%p 증가함

부모와 동거를 선호하는 이유 (%)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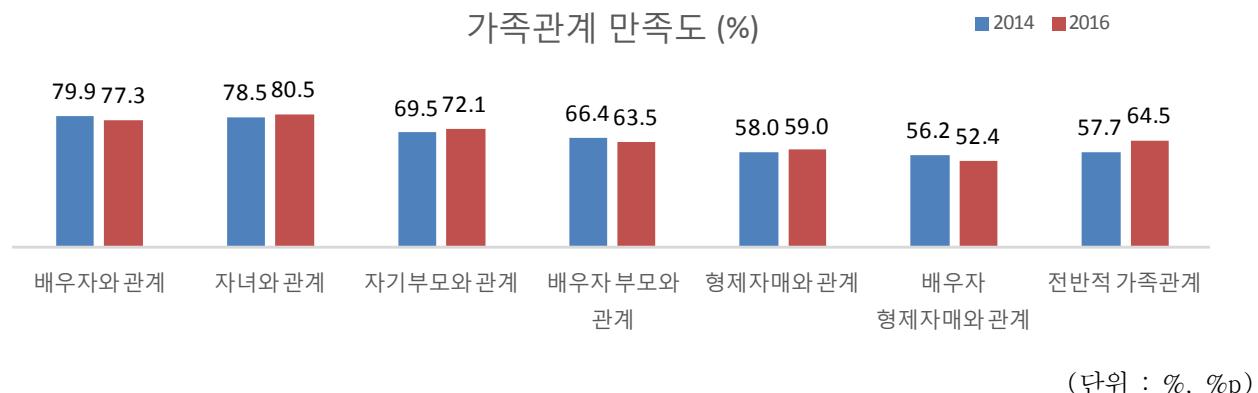
구분	당연한 의무	자녀양육문제	자녀교육효과	경제적도움	가족간화합	기타
2014	59.0	5.6	5.6	8.1	21.0	0.8
2016	65.1	3.9	2.5	10.2	17.0	1.4
(증감)	6.1	-1.7	-3.1	2.1	-4	0.6
29세이하	38.3	6.0	2.6	23.7	26.9	2.5
30~39세	45.5	11.6	1.1	20.4	19.6	1.9
40~49세	65.4	4.9	2.1	10.6	15.6	1.4
50~59세	72.0	2.3	2.9	6.0	16.3	0.6
60세이상	77.1	2.0	2.6	4.2	13.0	1.1

3. 전반적인 가족관계 만족도

* '만족한다' ; 「매우 만족한다」와 「약간 만족한다」를 합한 비율

「전반적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이 64.5%로 2년전에 비해 증가함

- 「전반적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64.5%로, 2년전에 비해 6.8%p 증가
 - 연령이 증가할수록 「만족한다」 비율은 감소한 반면,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한다」 비율은 증가함
- '만족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가족관계는 「자녀와 관계」 80.5%, 가장 낮은 관계는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계」로 52.4%로 나타남
 - 「자녀와 관계」에 이어 「배우자와 관계」 77.3%, 「자기부모와 관계」 72.1%의 순
 -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계」에 이어 「형제자매와 관계」 59.0%, 「배우자 부모와 관계」 63.5%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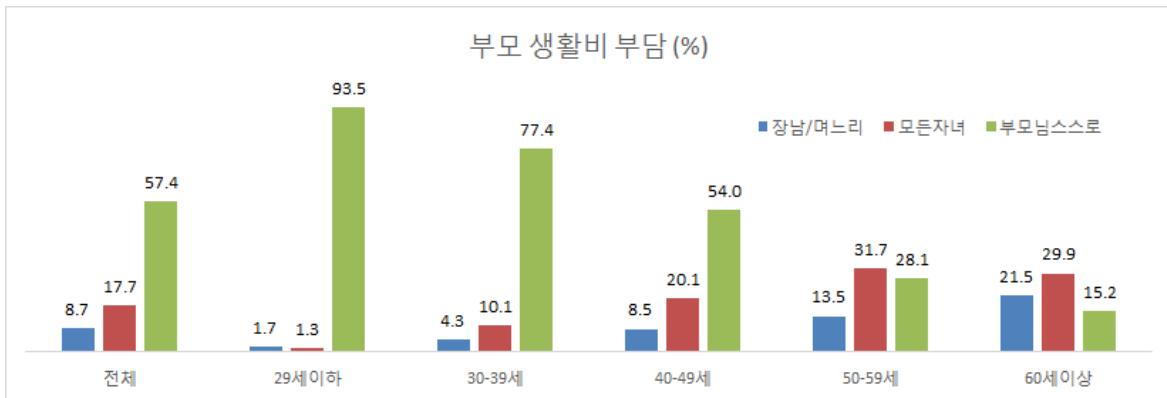


구분	배우자와 관계	자녀와 관계	자기부모와 관계	배우자 부모와 관계	형제자매와 관계	배우자 형제자매와 관계	전반적 가족관계
2014	79.9	78.5	69.5	66.4	58.0	56.2	57.7
2016	77.3	80.5	72.1	63.5	59.0	52.4	64.5
(증감)	-2.6	2	2.6	-2.9	1	-3.8	6.8
29세 이하	82.0	83.2	78.4	68.6	74.3	63.4	75.5
30-39세	85.0	89.3	77.0	71.5	71.3	66.1	73.5
40-49세	81.7	86.3	71.3	65.2	62.6	59.2	69.1
50-59세	77.1	82.0	68.3	60.9	57.6	52.9	64.4
60세 이상	73.0	76.2	60.7	53.7	50.3	46.0	57.3
100만 원 미만	71.2	71.8	63.9	52.2	50.6	44.3	54.4
100-200만 원	74.1	75.1	62.8	57.1	51.6	46.3	57.4
200-300만 원	81.2	82.1	71.3	65.0	58.5	56.2	66.3
300-400만 원	83.5	86.3	74.4	67.7	62.1	59.4	71.3
400-500만 원	85.1	87.0	74.7	69.4	63.5	61.0	74.0
500만 원 이상	88.3	90.0	77.6	72.1	68.7	66.0	77.4

4. 부모 생활비 부담

현재 부모의 생활비는 「부모 스스로」 충당한다는 응답비율이 57.4%로 가장 높음

- 현재 부모가 살아 계신 경우, 부모 생활비는 「부모님 스스로」(57.4%) 해결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이어 「모든 자녀」 17.7%, 「장남, 며느리」 8.7%의 순으로 비율이 높음
 - 29세이하 연령대는 「부모님 스스로」 가 93.5%를 차지하고 있고, 30~39세 응답자의 부모님도 생활비 부담을 주로 「부모님 스스로」(77.4%)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가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되는 40~49세 응답자는 「부모님 스스로」 가 54.0%로 감소하는 등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모님 스스로」 비율이 감소함
 - 응답자 연령이 60세 이상은 「부모님 스스로」 가 15.2%를 차지하는 반면 「장남, 며느리」 21.5%, 「모든 자녀 29.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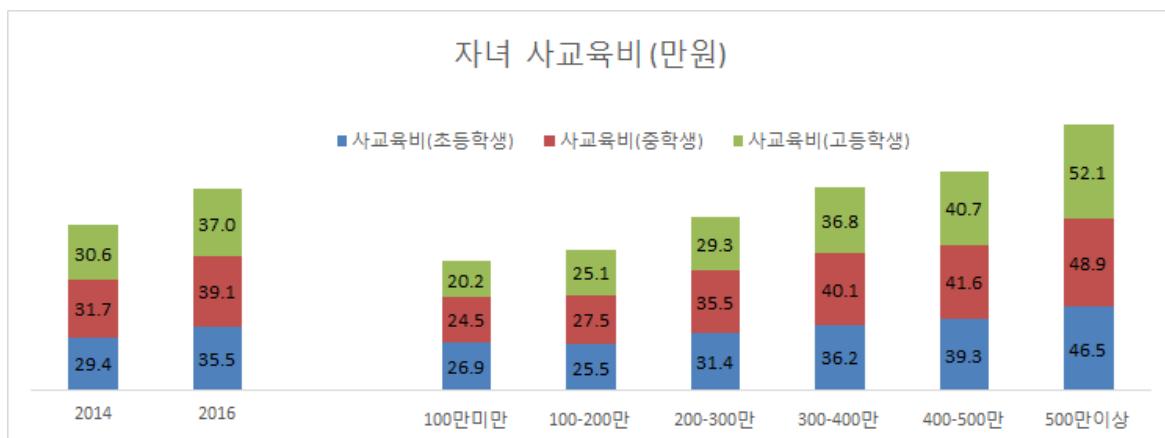
(단위 : %)

구분	장남/ 며느리	아들/ 며느리	딸/사위	모든 자녀	부모님 스스로	기타	정부/ 사회단체	가족과정 부/사회단 체	기타
전연령	8.7	8.2	1.5	17.7	57.4	6.6	2.9	3.6	0.1
29세 이하	1.7	1.6	0.7	1.3	93.5	1.2	1.0	0.2	0.1
30-39세	4.3	4.6	1.5	10.1	77.4	2.2	1.1	1.0	0.1
40-49세	8.5	9.2	1.6	20.1	54.0	6.6	2.3	4.3	0.0
50-59세	13.5	13.1	1.9	31.7	28.1	11.8	4.7	7.0	0.1
60세 이상	21.5	16.1	2.2	29.9	15.2	15.1	7.9	7.0	0.2

5. 월평균 사교육비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 35.5만원, 중학생 39.1만원, 고등학생 37.0만원으로 나타남

- '16년 도내 가구의 월평균 자녀 사교육비는 중학생 39.1만원, 고등학생 37.0만원, 초등학생 35.5만원, 미취학자녀 14.0만원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는 2년전에 비해 고등학생은 6.4만원, 중학생 7.4만원, 초등학생 6.1만원, 미취학자녀 3.4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는 52.1만원을 지출한 반면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는 20.2만원을 지출
 - 중학생 사교육비는 가구소득 500만원 이상은 48.9만원을 지출하는 반면, 월평균소득 100만원미만 가구는 24.5만원을 지출하여 약 2배의 차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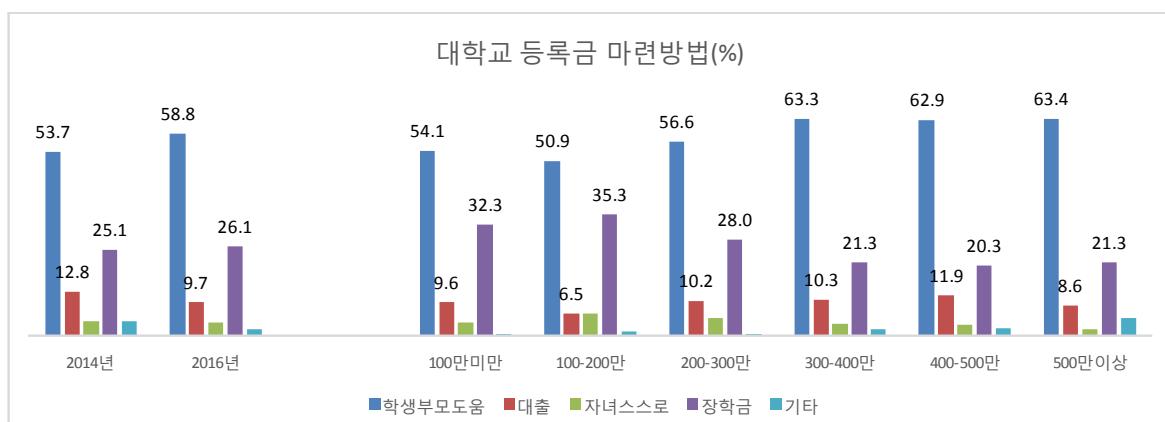
(단위 : 만원)

구분	미취학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4	10.6	29.4	31.7	30.6
2016	14.0	35.5	39.1	37.0
(증감)	3.4	6.1	7.4	6.4
100만원미만	12.4	26.9	24.5	20.2
100-200만원	11.9	25.5	27.5	25.1
200-300만원	13.2	31.4	35.5	29.3
300-400만원	13.7	36.2	40.1	36.8
400-500만원	14.8	39.3	41.6	40.7
500만원이상	18.0	46.5	48.9	52.1

6.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

등록금 마련방법 : 「학생부모 도움」 58.8%, 「장학금」 26.1%, 「대출」 9.7%

- 대학생이 있는 가구의 대학교 등록금 마련방법으로는 「학생의 부모도움」 58.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장학금」 26.1%, 「대출」 9.7%의 순으로 나타남
 - 2년전 대비 「학생의 부모도움」은 5.1%p 증가한데 비해 「대출」은 3.1%p 감소함
 - 「학생의 부모도움」은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미만은 54.1%인데 비해 500만원 이상은 63.4%로 나타나 가구소득 증가할수록 대학교 등록금 부모의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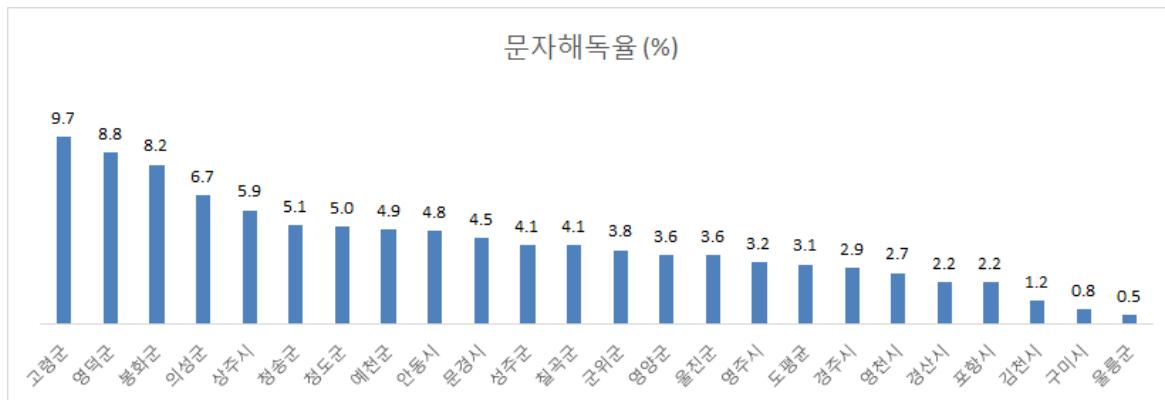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학생부모도움	대출	자녀스스로	장학금	기타
2014년	53.7	12.8	4.2	25.1	4.2
2016년	58.8	9.7	3.8	26.1	1.6
(증감)	5.1	-3.1	-0.4	1	-2.6
100만원미만	54.1	9.6	3.6	32.3	0.4
100-200만원	50.9	6.5	6.3	35.3	1.0
200-300만원	56.6	10.2	5.1	28.0	0.0
300-400만원	63.3	10.3	3.5	21.3	1.6
400-500만원	62.9	11.9	3.0	20.3	2.0
500만원이상	63.4	8.6	1.7	21.3	5.1

7. 문자해독율

한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해인구는 73천명, 도내 15세이상 237천명의 3.1%를 차지하여 2년전에 비해 1.1%p 감소함

- '16년 한글을 해독하지 못하는 인구(=비문해인구)는 73천명으로 도내 15세이상 인구 2,367천명의 3.1%(=비문해율)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년전에 비해 비문해인구는 24.8천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15세이상 인구의 비문해율은 1.1%p 감소한 3.1%로 나타남



(단위 : 명,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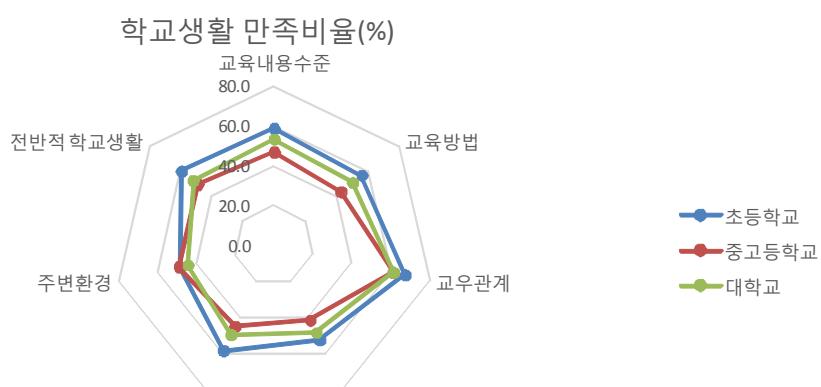
구분	비문해가구원수	15세이상인구	비문해율
2014	97,875	2,350,484	4.2
2016	73,078	2367,373	3.1
(증감)	-24,797	16,889	-1.1
포항시	9,691	447,470	2.2
경주시	6,678	229,908	2.9
김천시	1,518	125,106	1.2
안동시	7,148	147,959	4.8
구미시	2,771	350,537	0.8
영주시	3,119	96,987	3.2
영천시	2,418	91,054	2.7
상주시	5,396	91,862	5.9
문경시	2,984	66,967	4.5
경산시	4,886	223,907	2.2
군위군	872	22,782	3.8
의성군	3,375	50,613	6.7
청송군	1,244	24,449	5.1
영양군	582	16,274	3.6
영덕군	3,174	35,923	8.8
청도군	2,045	40,657	5.0
고령군	2,994	31,011	9.7
성주군	1,699	41,649	4.1
칠곡군	4,235	104,349	4.1
예천군	2,034	41,740	4.9
봉화군	2,527	30,748	8.2
울진군	1,643	46,155	3.6
울릉군	46	9,266	0.5

8. 학교생활 만족비율*

* 만족비율 = “매우 만족한다‘ + ”약간 만족한다“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비율은 초등학교, 대학교, 중고등학교의 순으로 높음

- 「전반적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비율은 초등학교가 59.5%로 가장 높고 이어 대학교 51.9%, 중고등학교 48.9%의 순으로 나타나 중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초등학교는 「교우관계」에서 만족비율이 67.3%로 가장 높은 반면 「주변환경」은 48.7%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중고등학교는 「교우관계」 61.3%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만족비율이 50%미만, 특히 「학교시설, 장비」는 41.8%를 기록하여 가장 낮음
 - 대학교는 「교우관계」가 61.4%로 가장 높은 반면, 「주변환경」은 44.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구분	교육내용수준	교육방법	교우관계	학교시설장비	교사와 관계	주변환경	전반적 학교생활
초등학교	58.5	56.1	67.3	52.7	58.7	48.7	59.5
중고등학교	46.7	42.9	61.3	41.8	45.3	48.9	48.9
대학교	53.1	50.3	61.4	48.7	49.8	44.3	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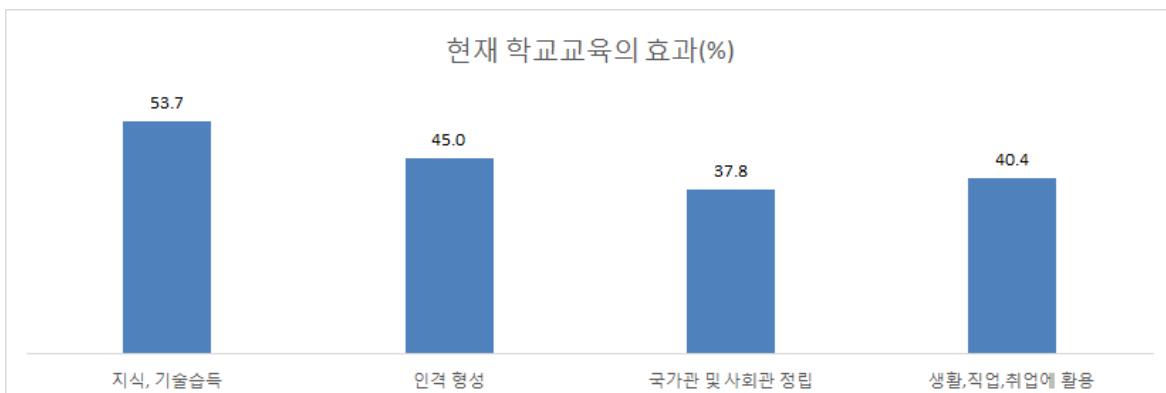
9. 현재 학교교육의 효과*

* 효과있다= “매우 효과있다” + “약간 효과있다”

학교교육이 「지식·기술 습득」에 '효과있다'는 비율이 53.7%로 상대적으로 높으나,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는 40.4%만이 '효과있다'고 응답

- 학교교육의 분야 중 「지식, 기술습득」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3.7%,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6%로 나타남
 - 「인격형성」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0%,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1.2%로 나타남
 -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3.2%로 나타남
 -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에 현재 학교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0.4%,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13.6%로 나타남
- 학교교육의 효과에 대해 학력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 보다는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학교교육의 효과(%)



(단위 : %)

구분	지식, 기술습득		인격 형성		국가관 및 사회관 정립		생활, 직업, 취업에 활용	
	효과있다	효과없다	효과있다	효과없다	효과있다	효과없다	효과있다	효과없다
2016	53.7	6.6	45.0	11.2	37.8	13.2	40.4	13.6
초졸이하	52.3	3.1	48.0	5.4	43.0	5.0	45.0	5.4
중졸	56.8	4.4	49.1	7.6	42.6	8.5	47.4	8.0
고졸	55.6	6.0	47.8	10.8	41.2	10.8	43.5	10.9
대졸이상	52.6	7.9	42.9	13.1	35.0	16.1	37.2	16.9

10.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평가

대기, 녹지환경, 강, 하천, 호수의 환경상태에 대해 인구의 절반이상이 호의적으로 평가한 반면, 토양, 소음진동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가함

□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기의 질」 58.0%, 「녹지환경」 53.0%, 「강,하천,호수의 질」 51.5%, 「토양」 47.7%, 「소음, 진동」 44.0%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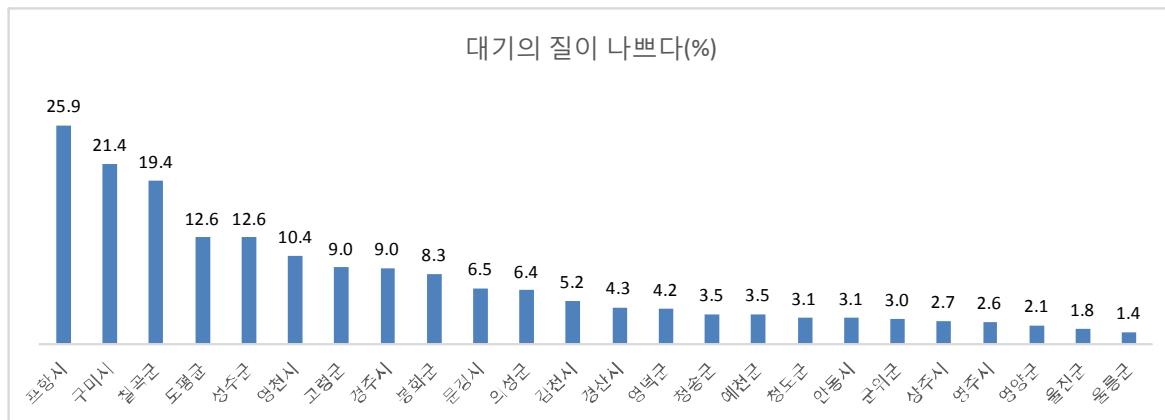
* 좋다= 매우 좋다 + 약간 좋다

- 2년전과 비교하면 좋아졌다는 비율은 「소음,진동」 2.2%p, 「토양」 4.1%p, 「강, 하천,호수의 질」 3.0%p, 「대기의 질」 2.8%p, 「녹지환경」 1.1%p의 순으로 증가함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해 '나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음,진동」 20.8%, 「강,하천,호수의 질」 14.6%, 「토양」 13.9%, 「녹지환경」 12.7%, 「대기의 질」 12.6%의 순으로 나타남

* 나쁘다= 매우 나쁘다 + 약간 나쁘다

- 2년전과 비교하면 나빠졌다는 비율은 대부분 큰 변동이 없으나 「토양」은 1.3%p 감소한데 비해 「녹지환경」은 1.4%p 증가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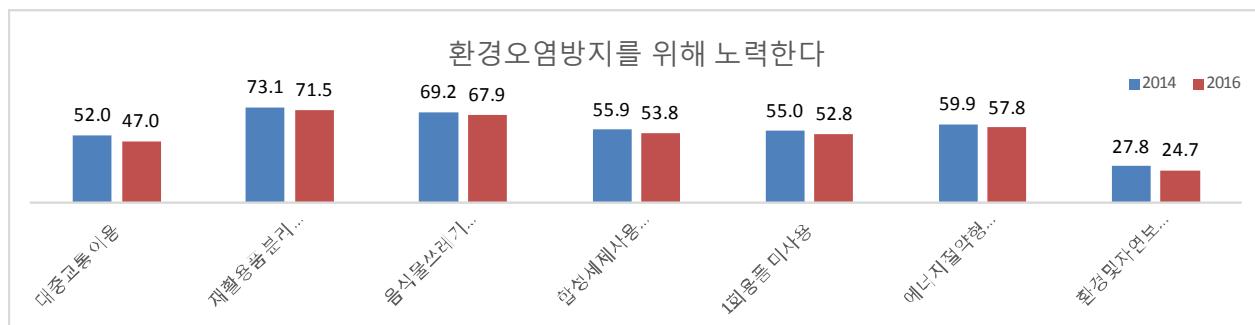
구분	대기의 질		강,하천,호수의 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2014년	55.2	12.2	48.5	14.1	43.6	15.2	41.8	21.0	51.9	11.3
2016년	58.0	12.6	51.5	14.6	47.7	13.9	44.0	20.8	53.0	12.7
(증감)	2.8	0.4	3.0	0.5	4.1	-1.3	2.2	-0.2	1.1	1.4

11. 환경오염 방지노력*

* 노력한다= “매우 노력한다” + ”조금 노력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다양한 실천활동을 한다는 인구의 비율이 2년전에 비해 감소하였고, 특히 '대중교통 이용'은 2년전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함

- 생활속 환경오염 방지노력 중에서 '노력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재활용품 분리배출」로 전체 71.5%가 응답
 - 2년전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중 「대중교통 이용」은 5.0%p 감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이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가 3.1%p 감소함
-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활동은 「환경보호활동에 참여」로 전체의 43.6%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노력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은 활동으로 「대중교통 이용」 23.6%, 「에너지 절약형 제품구입」 11.8%의 순으로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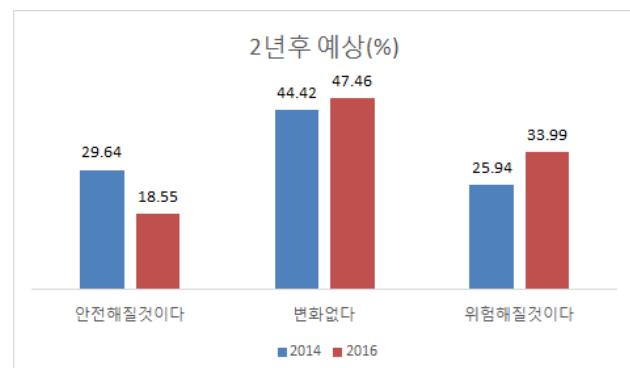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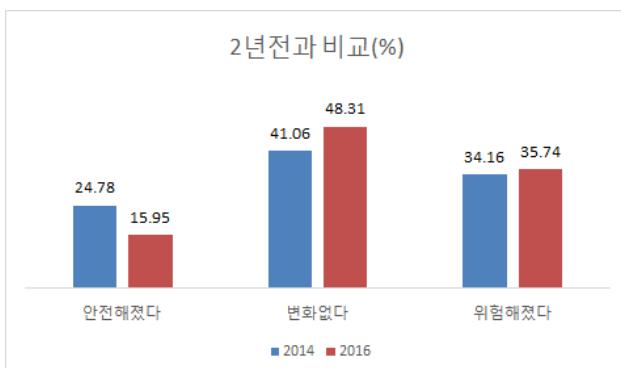
구분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합성세제 사용줄이기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2014년	52.0	33.3	18.3	73.1	22.7	4.3	69.2	25.7	5.1	55.9	36.0	8.2
2016년	47.0	30.7	23.6	71.5	23.4	5.1	67.9	26.5	5.6	53.8	37.2	9.0
(증감)	-5.0	-2.6	5.3	-1.6	0.7	0.8	-1.3	0.8	0.5	-2.1	1.2	0.8

구분	1회용품 미사용			에너지절약형 제품 구입			환경및자연보호운동참여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노력한다	보통	노력않음
2014년	55.0	35.7	8.2	59.9	29.7	10.4	27.8	33.0	39.2
2016년	52.8	33.7	10.3	57.8	30.4	11.8	24.7	31.7	43.6
(증감)	-2.2	-2.0	2.1	-2.1	0.7	1.4	-3.1	-1.3	4.4

12. 우리사회의 안전상태 변화

우리사회 안전이 「위험해졌다」는 비율이 증가하였고, 향후에도 안정상태가 「위험해질 것이다」라는 비율도 증가하여 우리사회 안전상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증가

- 2년전과 비교하여 우리사회가 「안전해 졌다」는 비율은 16.0%인데 비해 「위험해졌다」는 비율은 35.7%로 현재의 안전상태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이 증가함
 - 「안전해졌다」는 비율은 8.8%p 감소한데 비해 「위험해졌다」는 비율은 1.5%p 증가함
- 2년후에 우리사회가 「안전해 질 것이다」는 응답비율은 18.6%인데 비해 「위험해 질것이다」라는 비율은 34.0%로 앞으로 사회가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봄
 - 2년전 응답자료와 비교해도 「안전해질 것이다」는 비율은 11.0%p 감소한데 비해 「위험해질 것이다」는 비율은 8.1%p 증가함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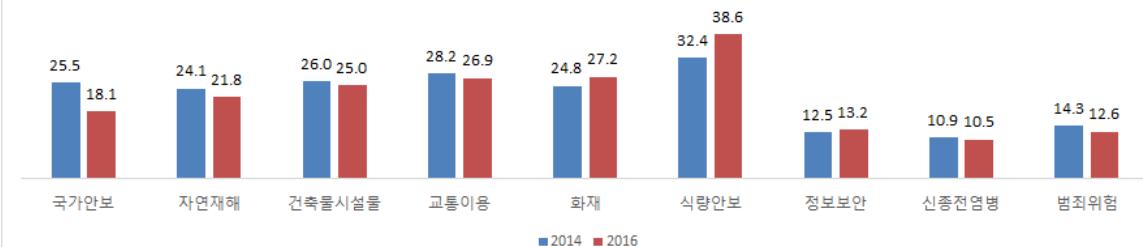
구분	2년전과 비교			2년후 예상		
	안전해졌다	변화없다	위험해졌다	안전해질것이다	변화없다	위험해질것이다
2014	24.8	41.1	34.2	29.6	44.4	25.9
2016	16.0	48.3	35.7	18.6	47.5	34.0
(증감)	-8.8	7.2	1.5	-11.0	3.1	8.1

13. 우리사회 분야별 안전상태 평가

우리사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식량안보」, 「화재」, 「교통이용」,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신종점염병」, 「범죄위험」, 「국가안보」의 순

- 도민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식량안보」>「화재」>「교통이용」>「건축물시설물」>「자연재해」>「국가안보」>「정보보안」>「범죄위험」> 「신종점염병」의 순
 - 2년전과 비교하여 '안전하다'는 비율이 증가한 분야는 「화재」 2.4%p, 「식량안보」 6.2%p, 「정보보안」 0.7%p으로 나타났고
 - '안전하다'는 비율이 감소한 분야는 「국가안보」 7.4%p, 「자연재해」 2.3%p, 「정보보안」 0.7%p으로 나타남
- 도민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신종점염병」>「범죄위험」>「국가안보」>「정보보안」>「자연재해」>「건축물시설물」>「교통이용」>「화재」> 「식량안보」의 순
 - 2년전과 비교하여 '불안하다'는 비율이 증가한 분야는 「국가안보」 15.7%p, 「범죄위험」 7.9%p, 「신종점염병」 6.1%p, 「자연재해」 5.1%p으로 나타났고
 - '불안하다'는 비율이 감소한 분야는 「화재」 -0.3%p, 「식량안보」 -1.3%p로 나타남

우리사회 분야별 안전상태 평가 (%)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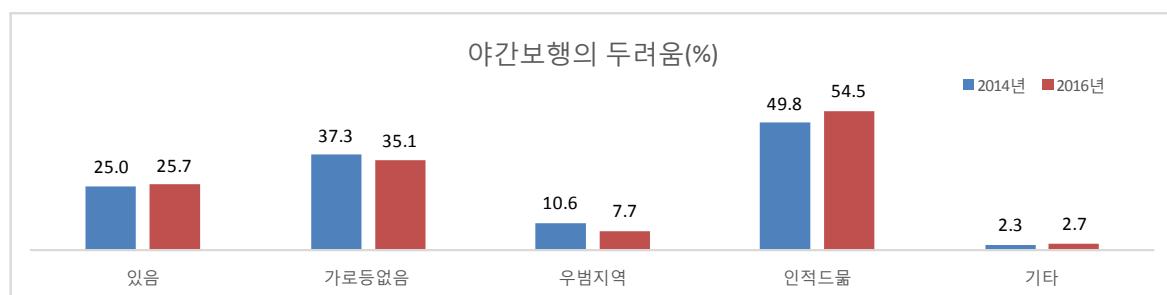
구분	국가안보		자연재해		건축물시설물		교통이용		화재		식량안보		정보보안		신종점염병		범죄위험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안전	불안
2014년	25.5	34.9	24.1	29.8	26.0	20.3	28.2	17.0	24.8	18.5	32.4	18.5	12.5	46.8	10.9	53.0	14.3	46.2
2016년	18.1	50.6	21.8	34.9	25.0	22.4	26.9	19.7	27.2	18.2	38.6	17.2	13.2	48.0	10.5	59.1	12.6	54.1
(증감)	-7.4	15.7	-2.3	5.1	-1.0	2.1	-1.3	2.7	2.4	-0.3	6.2	-1.3	0.7	1.2	-0.4	6.1	-1.7	7.9

14. 야간보행의 두려움과 대처방법

※ 야간보행의 두려움은 사회의 치안상태에 대한 국제적 통용지표.

‘야간보행에 두려운 곳이 있다’는 비율은 25.7%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인적 드ಡ」, 「가로등 미설치」, 「우범지역이므로」 등이 꼽힘

- ‘집근처에 야간보행이 두려운 곳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7%로 2년전에 비해 큰 변동이 없음
 - 야간보행이 두려운 이유로, 「인적 드ಡ」이 5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로등 미설치」 35.1%, 「우범지역이므로」 7.7%의 순
 - 2년전과 비교하면, 「가로등 미설치」는 2.2%p, 「우범지역」 2.9%p 등은 감소하였으나 「인적 드ಡ」은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야간보행이 두려울 경우 대처방법으로는 「그냥 다님」이 59.9%로 가장 높고 이어 「피해다님」 14.4%, 「지인과 동행」 13.8%, 「택시이용」 8.5%, 「호신도구 소지」 0.6%의 순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있음	가로등없음	우범지역	인적드ಡ	기타
2014년	25.0	37.3	10.6	49.8	2.3
2016년	25.7	35.1	7.7	54.5	2.7
(증감)	0.7	-2.2	-2.9	4.7	0.4
남	18.7	37.5	7.6	51.6	3.3
여	31.8	33.9	7.7	56.0	2.4

구분	그냥다님	피해다님	택시이용	호신도구소지	지인과동행	기타
2014년	60.2	14.3	8.5	0.3	14.2	2.5
2016년	59.9	14.4	8.5	0.6	13.8	2.8
(증감)	-0.3	0.1	0	0.3	-0.4	0.3
남	66.0	13.2	7.2	0.7	10.5	2.4
여	56.8	15.1	9.1	0.6	15.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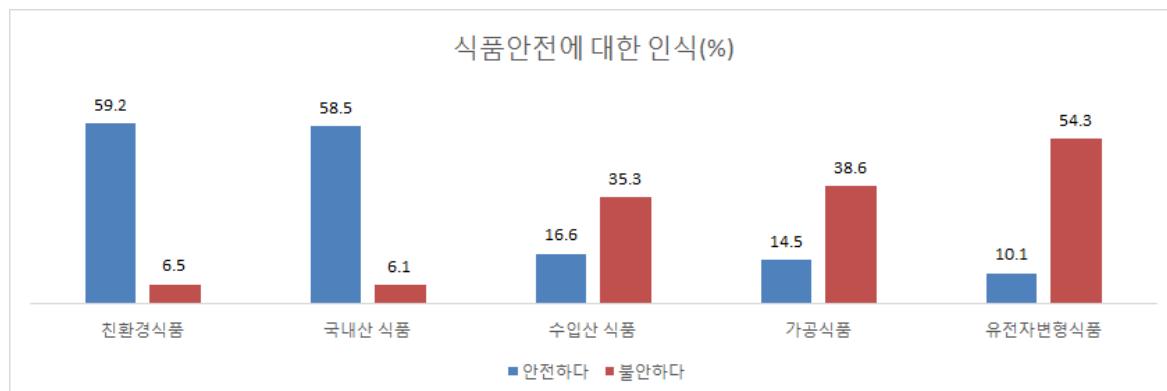
15.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 안전하다 = 매우 안전하다 + 약간 안전하다 비율

수입산식품,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년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낮아 이들 식품에 대해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수입산 식품」, 「가공식품」, 「유전자 변형식품(GMO)」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년전과 마찬가지로 10%대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수입산 식품 등 식품전반에 걸쳐 '불안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감소함
- 「친환경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졸이하 68.9%, 대졸이상 55.4%로 학력이 높을수록 불안감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친환경식품		국내산 식품		수입산 식품		가공식품		유전자변형식품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안전하다	불안하다
2014	54.5	7.9	44.3	14.4	11.6	52.8	8.5	51.3	5.9	64.9
2016	59.2	6.5	58.5	6.1	16.6	35.3	14.5	38.6	10.1	54.3
(증감)	4.7	-1.4	14.2	-8.3	5	-17.5	6	-12.7	4.2	-10.6
초졸이하	68.9	3.6	70.2	2.9	18.9	32.7	15.7	35.1	11.5	48.6
중졸	66.3	5.4	67.3	5.0	17.3	36.9	14.1	39.4	10.4	54.1
고졸	61.4	8.3	62.0	7.9	18.1	38.1	14.9	41.1	10.7	55.7
대졸이상	55.4	6.8	53.6	6.6	15.7	34.6	14.3	38.4	9.8	54.9

16. 도민들의 평소 준법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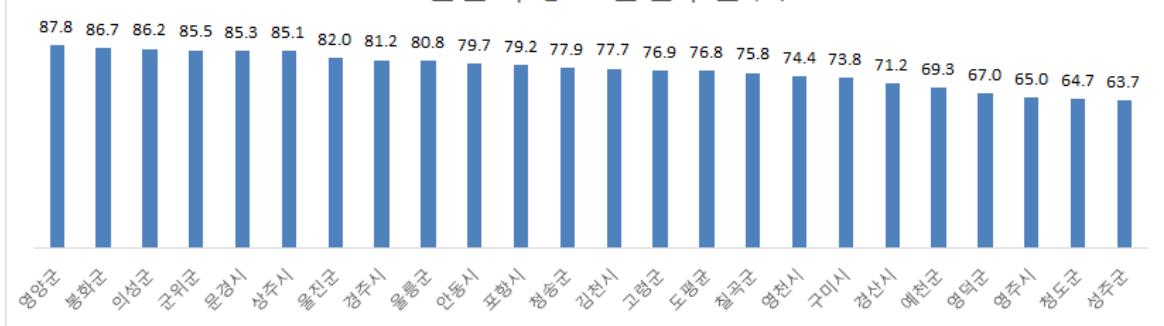
* 법을 잘 지킨다 = 아주 잘 지킨다 + 비교적 잘 지킨다

'평소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는 비율은 76.8%로 높게 나타남

□ 도민들의 평소 자기자신의 준법수준에 대해 '아주 잘지킴' 23.8%, '비교적 잘지킴' 53.0%로 응답하여 잘 지킨다는 비율이 76.8%로 나타남

- 시군별로는 영양군, 봉화군, 의성군이 잘 지킨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주군, 청도군, 영주시는 상대적으로 잘 지킨다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도민들의 평소 준법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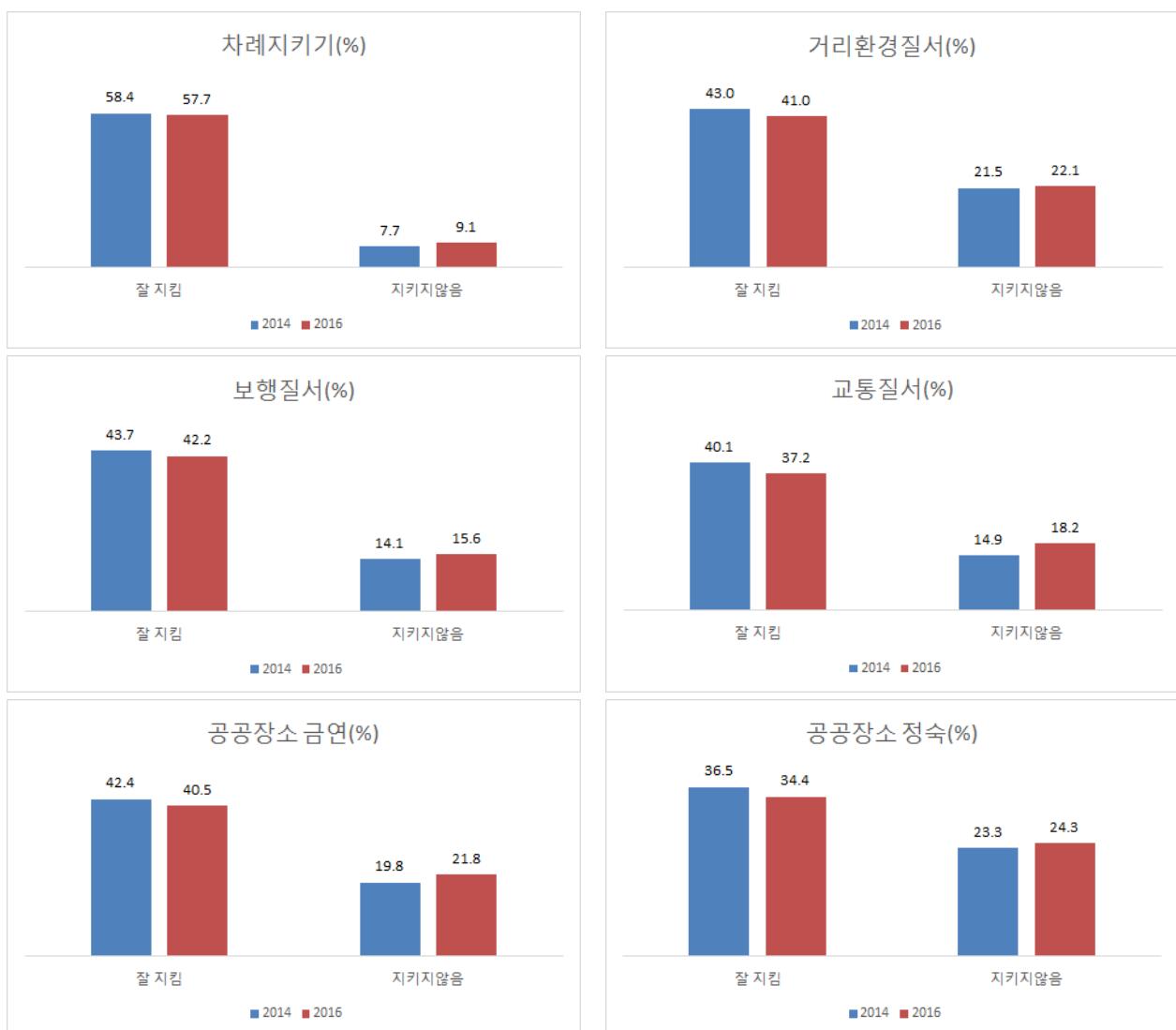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잘 지킨다	보통		지키지 않는편
		아주 잘지킴	비교적 잘지킴	
2014	75.5	23.8	51.8	23.6
2016	76.8	23.8	53.0	22.3
(증감)	1.3	0.0	1.2	-1.3
포항시	79.2	22.1	57.2	19.2
경주시	81.2	28.4	52.8	18.2
김천시	77.7	22.7	55.0	21.5
안동시	79.7	24.3	55.4	20.0
구미시	73.8	25.8	48.1	25.0
영주시	65.0	14.2	50.9	34.1
영천시	74.4	23.2	51.2	25.2
상주시	85.1	27.9	57.2	14.4
문경시	85.3	33.4	51.9	14.2
경산시	71.2	11.7	59.5	27.6
군위군	85.5	43.8	41.8	13.9
의성군	86.2	39.6	46.6	13.5
청송군	77.9	20.6	57.3	21.7
영양군	87.8	27.4	60.4	11.8
영덕군	67.0	27.0	40.0	31.0
청도군	64.7	19.8	44.9	33.6
고령군	76.9	18.2	58.7	22.4
성주군	63.7	18.7	45.0	33.2
칠곡군	75.8	28.4	47.4	23.7
예천군	69.3	30.2	39.1	30.5
봉화군	86.7	40.9	45.8	13.1
을진군	82.0	27.4	54.6	17.4
을릉군	80.8	33.2	47.6	19.2

17. 우리 국민들의 공공질서 준수수준

차례지키기는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높은 반면, 공공장소 금연은 '잘 지킨다'고 응답한 비율이 40.5%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우리국민들의 공공질서 수준에 대해 「차례지키기」는 '잘 지킨다'는 비율이 57.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에 「거리환경질서」 41.0%, 「보행질서」 42.2%, 「공공장소 금연」 40.5%로 나타남
 - 2년전과 비교해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잘 지킨다'는 비율이 감소한 반면 '지키지 않는다'는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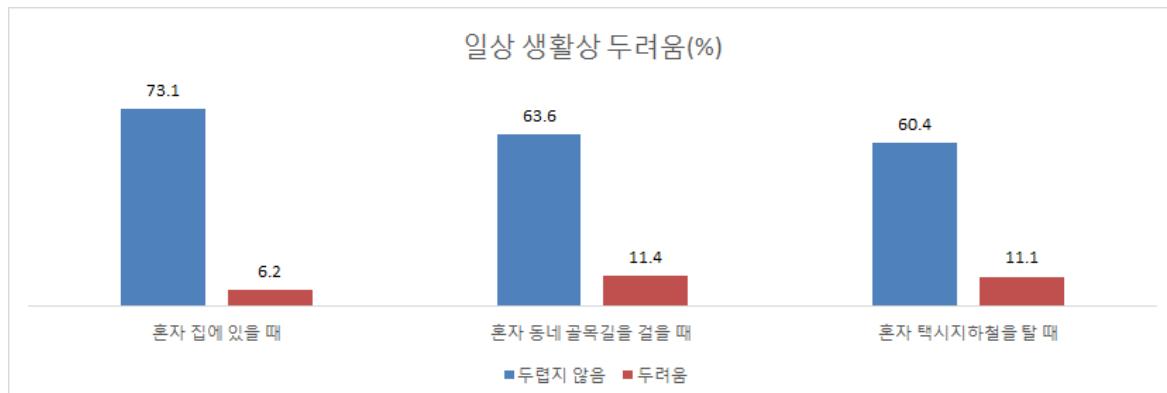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차례지키기		거리환경질서		보행질서		교통질서		공공장소 금연		공공장소 정숙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잘 지킴	지키지 않음
2014	58.4	7.7	43.0	21.5	43.7	14.1	40.1	14.9	42.4	19.8	36.5	23.3
2016	57.7	9.1	41.0	22.1	42.2	15.6	37.2	18.2	40.5	21.8	34.4	24.3
(증감)	-0.7	1.4	-2	0.6	-1.5	1.5	-2.9	3.3	-1.9	2	-2.1	1

18. 일상생활상 두려움

혼자 집에 있는 경우보다 혼자 골목길을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상대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6.2%로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73.1%로 나타남
 - 남자 2.4%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9.5%는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63.6%로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11.4%로 나타남
 - 남자의 4.9%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17.1%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 「혼자 택시, 지하철을 탈 때」 「두려움」을 느낀다는 비율은 11.1%로 나타났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비율은 60.4%로 나타남
 - 남자 4.5%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 16.9%가 「두려움을 느낀다」고 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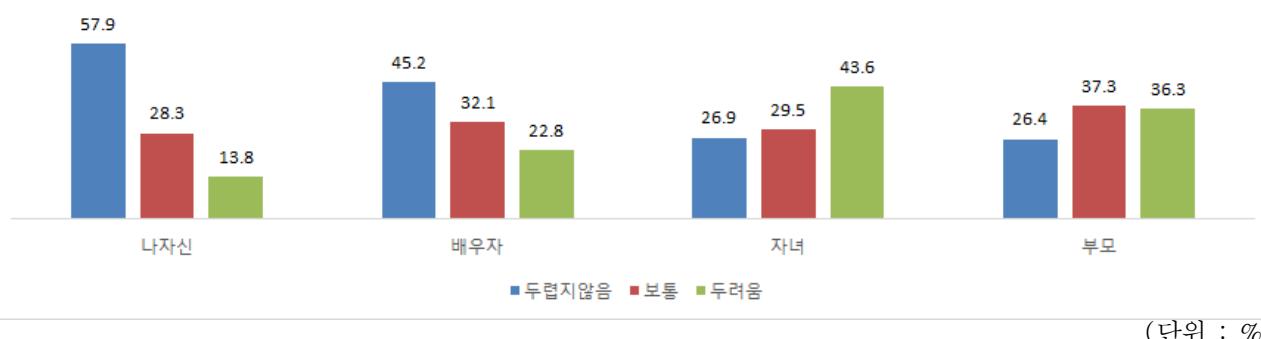
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혼자 택시지하철을 탈 때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2016	73.1	20.7	6.2	63.6	25.0	11.4	60.4	28.5	11.1
남	80.4	17.1	2.4	74.2	20.9	4.9	72.6	22.9	4.5
여	66.8	23.7	9.5	54.4	28.6	17.1	49.7	33.4	16.9

19. 범죄피해 대상별 두려움

자신보다는 자녀, 부모, 배우자의 순으로 범죄피해 발생을 두려워 함

- '주변가족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두려운가'라는 질문에 대해, '두렵다'는 비율이 '두렵지 않다'는 비율보다 큰 관계는 「자녀」, 「부모」로 나타남
 - 「자녀」: 「두렵지 않다」(26.9%) > 「두렵다」(43.6%)
 - 「배우자」: 「두렵지 않다」(26.4%) > 「두렵다」(36.3%)
 - 가구소득별로 가구월평균소득이 클수록 「나자신」의 범죄발생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에 대한 두려움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주변 가족의 범죄피해 두려움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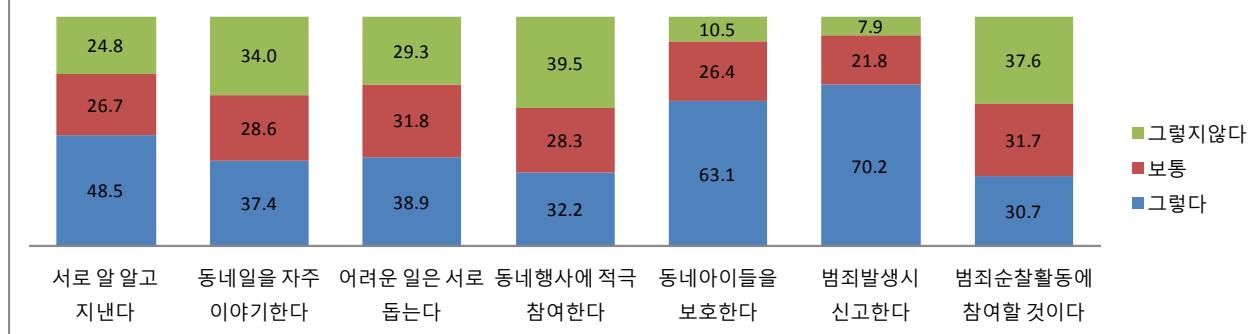
구분	나자신			배우자			자녀			부모		
	두렵지 않음	보통	두려움									
2016	57.9	28.3	13.8	45.2	32.1	22.8	26.9	29.5	43.6	26.4	37.3	36.3
남	67.8	25.2	7.0	42.0	31.7	26.3	28.0	30.4	41.6	29.0	36.9	34.0
여	49.2	31.0	19.8	48.3	32.5	19.2	26.1	28.7	45.2	23.8	37.7	38.5
100만원미만	62.1	26.0	11.9	50.7	28.1	21.2	31.7	33.4	34.9	32.3	38.1	29.6
100-200만원	62.6	26.5	10.9	43.9	32.4	23.7	30.2	31.7	38.0	27.4	38.1	34.5
200-300만원	64.3	27.3	8.4	39.1	33.5	27.4	25.2	29.1	45.7	22.8	39.5	37.6
300-400만원	63.6	27.3	9.1	38.2	34.1	27.7	24.6	29.4	46.0	24.0	36.8	39.2
400-500만원	65.2	26.2	8.7	36.1	33.5	30.4	21.7	26.6	51.7	21.6	35.0	43.4
500만원이상	67.7	23.0	9.3	38.0	31.4	30.6	25.1	24.7	50.2	26.5	33.2	40.2

20. 동네 주민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8.5%로 나타남

- 동네사람들에 대해 평소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48.5%, 「그렇지 않다」 24.8%로 나타남
 - 남자보다는 여자가 「그렇다」는 비율이 높음
- 평소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자주 이야기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7.4%, 「그렇지 않다」 34.0%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33.2%, 여자 41.2%로 나타남
-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돋는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8.9%, 「그렇지 않다」 29.3%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35.4%, 여자 42.0%로 나타남
-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2.2%, 「그렇지 않다」 39.5%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29.9%, 여자 34.2%로 나타남
- '동네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63.1%, 「그렇지 않다」 10.5%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63.5%, 여자 62.8%로 나타남
-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70.2%, 「그렇지 않다」 7.9%로 나타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70.9%, 여자 69.7%로 나타남
-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30.7%, 「그렇지 않다」 37.6%로 응답함
 - 「그렇다」는 비율은 남자 33.8%, 여자 28.0%로 나타남

동네 주민과의 관계(%)



(단위 : %)

구분	서로 잘 알고 지낸다			동네일을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은 서로 돋는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2016	48.5	26.7	24.8	37.4	28.6	34.0	38.9	31.8	29.3
남	44.3	27.2	28.5	33.2	28.5	38.3	35.4	31.8	32.8
여	52.3	26.2	21.5	41.2	28.7	30.2	42.0	31.8	26.2
29세이하	15.6	29.8	54.7	9.0	25.1	66.0	11.4	30.4	58.2
30-39세	22.9	33.5	43.6	14.2	31.3	54.6	15.5	36.4	48.1
40-49세	33.4	34.8	31.7	21.4	34.1	44.5	24.2	37.8	38.1
50-59세	47.6	30.2	22.2	34.8	31.7	33.5	37.0	34.9	28.2
60세이상	71.0	19.2	9.8	59.1	25.4	15.5	59.6	27.2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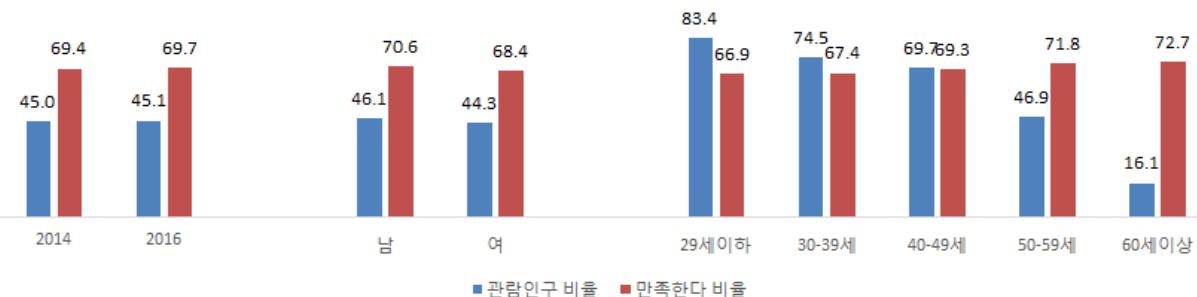
구분	동네행사에 적극 참여한다			동네아이들을 보호한다			범죄발생시 신고한다			범죄순찰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2016	32.2	28.3	39.5	63.1	26.4	10.5	70.2	21.8	7.9	30.7	31.7	37.6
남	29.9	27.6	42.5	63.5	25.8	10.7	70.9	20.9	8.3	33.8	32.0	34.2
여	34.2	28.8	37.0	62.8	26.8	10.4	69.7	22.7	7.6	28.0	31.4	40.6
29세이하	7.3	24.2	68.5	43.7	34.1	22.1	55.5	28.2	16.3	17.4	33.7	49.0
30-39세	10.4	27.4	62.2	54.3	31.0	14.7	63.4	26.1	10.5	21.4	37.2	41.5
40-49세	17.8	31.8	50.4	59.5	30.0	10.5	69.3	22.9	7.8	29.9	36.3	33.8
50-59세	31.2	30.4	38.4	65.6	25.9	8.6	72.4	21.1	6.5	34.2	32.4	33.5
60세이상	51.1	27.3	21.5	71.3	21.7	7.0	75.7	18.8	5.5	35.8	27.6	36.7

21. 공연 및 스포츠 관람경험 및 만족도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인구비율은 절반에 못미치는 45.1%로 나타남

- 지난 1년간 공연 및 스포츠를 관람한 인구비율은 45.1%로 절반에 못미치고, 2년전(45.0%)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남자 46.1%, 여자 44.3%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9세이하」는 83.4%인데 비해 「60세이상」은 16.1%로 연령이 높을수록 떨어짐
- 관람한 공연 및 스포츠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69.7%로 나타나 만족도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만족도는 성별, 연령별로 모두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공연 및 스포츠 관람경험 및 만족도 (%)



(단위 :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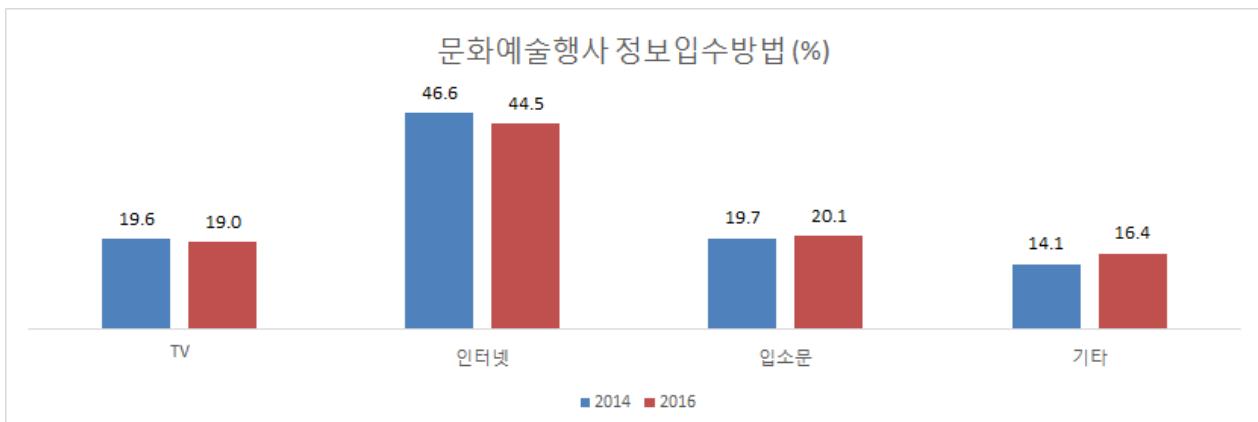
구분	관람인구 비율	만족한다 비율
2014	45.0	69.4
2016	45.1	69.7
(증감)	0.1	0.3
남	46.1	70.6
여	44.3	68.4
29세이하	83.4	66.9
30-39세	74.5	67.4
40-49세	69.7	69.3
50-59세	46.9	71.8
60세이상	16.1	72.7

22. 문화예술행사 정보입수 방법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과 입소문을 통해서 주로 얻는 것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정보입수방법으로 「인터넷」 44.5%, 「입소문」 20.1%, 「TV」 19.0%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인터넷」은 남자 47.1%, 여자 42.1%로 나타난데 비해 「입소문」은 남자 17.2%, 여자 22.8%로 나타나 여자들이 조금 더 입소문 의존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인터넷」은 29세이하 65.5%, 60세이상 11.0%로 나타난데 비해 「입소문」은 29세이하 13.1%, 60세이상 35.7%로 나타나, 젊은 층은 「인터넷」을 노년층은 「입소문」을 통해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TV	인터넷	입소문	기타
2014	19.6	46.6	19.7	14.1
2016	19.0	44.5	20.1	16.4
(증감)	-0.6	-2.1	0.4	2.3
남	18.9	47.1	17.2	16.8
여	19.0	42.1	22.8	16.0
29세이하	12.0	65.5	13.1	9.3
30-39세	14.5	59.9	13.0	12.7
40-49세	19.2	47.4	18.1	15.2
50-59세	24.8	28.4	25.3	21.5
60세이상	26.5	11.0	35.7	2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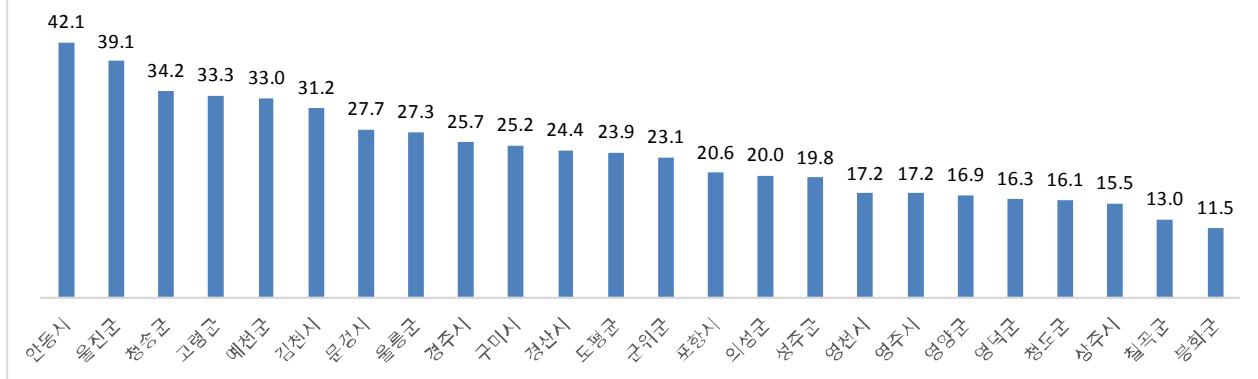
23.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지역 문화예술시설에 이용후 만족한다는 비율은 23.9%로 2년전에 비해 감소함

- 지역문화예술시설에 대해 '만족한다'는 비율은 23.9%로 2년전 25.3%에 비해 1.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시군별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시군은 안동시, 울진군, 청송군이고 하위 3개 시군은 봉화군, 칠곡군, 상주시로 나타남

지역 문화예술시설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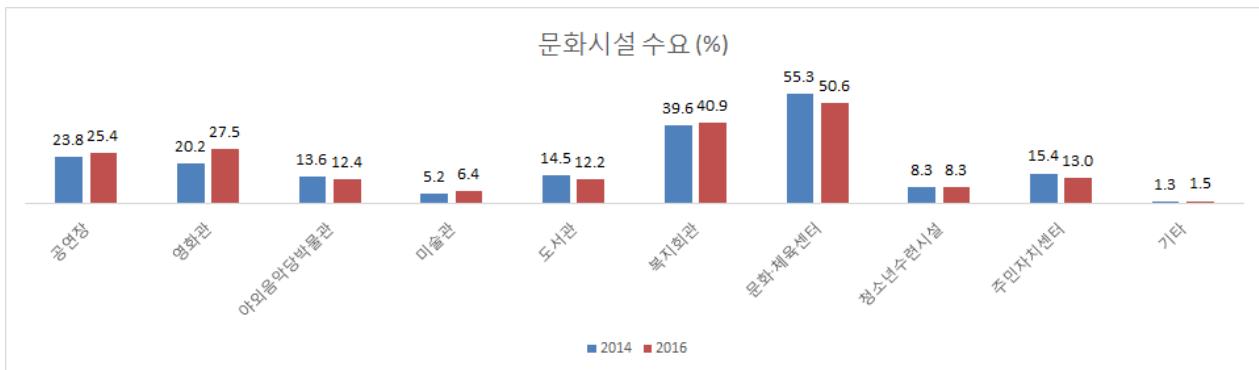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만족한다	매우만족	만족	보통	만족하지 않는다	불만족	매우불만족
2014	25.3	2.5	22.8	56.0	18.8	15.2	3.6
2016	23.9	2.6	21.3	59.6	16.5	14.1	2.4
(증감)	-1.4	0.1	-1.5	3.6	-2.3	-1.1	-1.2
포항시	20.6	1.9	18.7	58.4	21.1	18.4	2.7
경주시	25.7	2.1	23.6	56.3	18.0	14.8	3.3
김천시	31.2	3.7	27.5	60.8	7.9	7.1	0.8
안동시	42.1	4.4	37.7	48.6	9.3	8.4	0.9
구미시	25.2	2.7	22.4	59.8	15.1	12.6	2.5
영주시	17.2	0.9	16.3	61.7	21.1	16.3	4.8
영천시	17.2	1.4	15.8	69.6	13.2	10.7	2.5
상주시	15.5	1.4	14.1	63.4	21.1	15.2	5.9
문경시	27.7	4.9	22.8	61.5	10.7	10.0	0.7
경산시	24.4	2.0	22.4	59.4	16.3	14.9	1.3
군위군	23.1	2.2	20.9	66.3	10.6	9.7	0.9
의성군	20.0	2.8	17.2	66.4	13.5	11.2	2.3
청송군	34.2	7.6	26.6	54.2	11.6	10.5	1.2
영양군	16.9	0.8	16.1	72.4	10.7	9.7	1.0
영덕군	16.3	1.0	15.3	72.6	11.1	9.7	1.4
청도군	16.1	0.6	15.6	64.4	19.5	18.8	0.7
고령군	33.3	4.7	28.7	52.5	14.2	10.9	3.3
성주군	19.8	5.1	14.7	59.2	21.1	18.5	2.6
칠곡군	13.0	1.2	11.8	67.1	20.0	17.8	2.1
예천군	33.0	6.3	26.7	53.7	13.3	12.4	0.9
봉화군	11.5	1.9	9.6	66.4	22.1	18.8	3.3
울진군	39.1	10.4	28.7	45.9	15.0	12.3	2.7
울릉군	27.3	6.8	20.5	52.0	20.8	11.9	8.9

24. 문화예술시설 수요

가장 필요한 문화시설로 전연령층에서는 문화체육센터가, 20대이하는 영화관, 60세이상은 복지회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살고있는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시설로는 「문화체육센터」 50.6%로 가장 높고 이어 「복지회관」 40.9%, 「영화관」 27.5%의 순
 - 29세이하는 「영화관」 46.8%, 「문화체육센터」 43.2%, 「공연장」 39.0%의 순
 - 30~39세는 「문화체육센터」 50.5%, 「영화관」 36.3%, 「공연장」 34.8%의 순



단위 : %, %p

구분	공연장	영화관	야외음악당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주민자치센터	기타
2014	23.8	20.2	13.6	5.2	14.5	39.6	55.3	8.3	15.4	1.3
2016	25.4	27.5	12.4	6.4	12.2	40.9	50.6	8.3	13.0	1.5
(증감)	1.6	7.3	-1.2	1.2	-2.3	1.3	-4.7	0	-2.4	0.2
남	25.6	28.7	12.1	5.7	13.7	37.4	52.1	9.0	12.6	1.3
여	25.3	26.4	12.6	7.0	10.9	44.0	49.2	7.7	13.4	1.7
29세이하	39.0	46.8	15.4	9.4	16.4	8.4	43.2	15.8	2.3	1.3
30-39세	34.8	36.3	17.2	9.3	19.3	16.8	50.5	9.1	3.6	1.1
40-49세	28.0	33.1	14.8	8.5	18.9	22.7	52.3	13.7	5.6	0.7
50-59세	25.4	28.7	14.0	7.1	12.3	38.7	52.5	7.5	11.1	1.1
60세이상	18.1	17.0	8.6	3.7	6.5	64.6	51.2	4.3	22.3	2.1

25. 지난 1년간 여행경험

지난 1년간 관광목적 국내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인구의 절반인 55.6%이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전체의 14.0%으로 2년전에 비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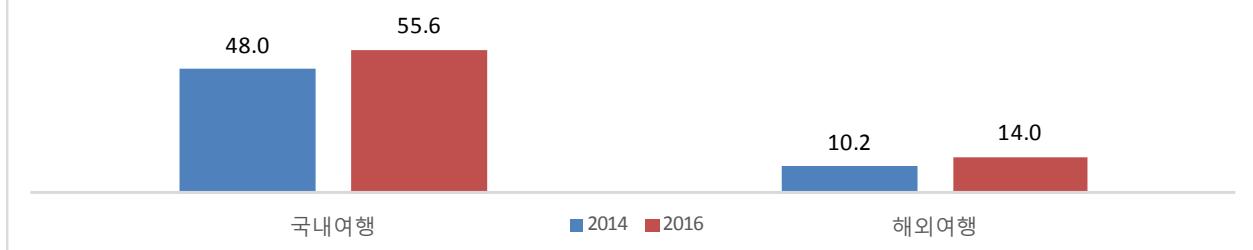
- 지난 1년간 관광목적 국내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전체 인구의 55.6%이고 이중 63.9%는 1회 평균 1.65일의 숙박여행을 다녀옴

- 2년전과 비교해서 국내여행 경험자는 7.6%p 증가하였고 숙박여행 비율도 1.8%p 증가하였으나 숙박여행 1회 평균숙박일수는 0.7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여행 경험비율은 가구소득규모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월평균가구소득 100만 원 미만은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비율이 33.5%인데 비해 월평균가구소득이 500만원이상인 가구는 80.1%로 나타남

- 해외여행 경험비율은 14.0%로 2년전에 비해 3.8%p 증가함

- 여행의 목적은 「관광」 88.9%, 「가사」 8.4%, 「업무」 7.7%, 「교육」 3.3%의 순

지난 1년간 여행경험 비율(%)



(단위 : %, %p)

구분	국내여행 경험				해외여행 경험						
	있다(%)	숙박여행	숙박여행 1회당 평균일수	당일여행 횟수	있다 (%)	관광 (%)	가사 (%)	업무 (%)	교육 (%)	없다 (%)	향후 계획있다 (%)
2014	48.0	62.1	2.4	4.4	10.2	83.1	8.4	11.0	3.9	89.9	27.6
2016	55.6	63.9	1.65	3.04	14.0	88.9	8.4	7.7	3.3	86.0	34.6
(증감)	7.6	1.8	-0.7	-1.4	3.8	5.8	0.1	-3.4	-0.6	-3.8	7.0
100만원미만	33.5	45.6	0.88	2.20	5.5	86.9	12.3	2.0	5.5	94.5	12.4
100-200만원	45.3	53.0	1.23	2.72	10.8	90.4	10.2	2.5	2.1	89.2	26.8
200-300만원	63.0	65.0	1.65	3.1	15.4	88.6	9.1	9.2	3.8	84.6	42.8
300-400만원	68.5	72.7	2.04	3.42	19.4	84.1	6.9	16.9	3.0	80.6	51.3
400-500만원	74.6	79.1	2.24	3.75	24.6	87.2	7.4	13.7	3.3	75.4	53.8
500만원이상	80.1	81.9	2.76	4.25	35.0	83.1	5.8	20.6	2.6	65.0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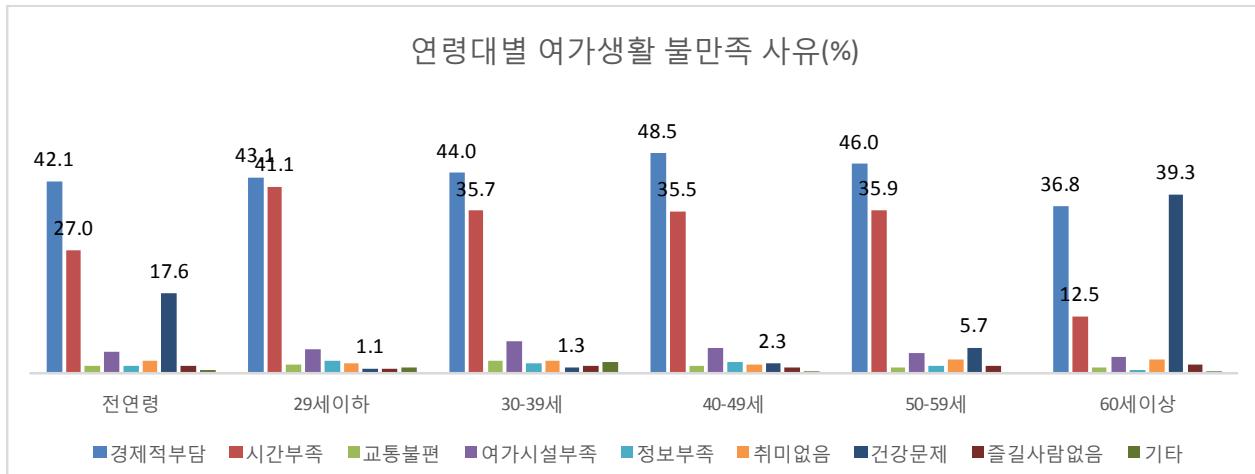
26. 여가생활 만족도* 및 불만족시 그 이유

*만족도 = 매우 만족한다 + 비교적 만족한다

평소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인구는 전체의 18.1%이고,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시간부족, 건강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꼽힘

-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4%인데 비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8.1%로 만족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전연령대에 걸쳐 '만족한다'는 비율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보다 높음
- 평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경제적 부담」 42.1%, 「시간부족」 27.0%, 「건강문제」 17.6%, 「여가시설부족」 4.8%의 순으로 나타남
 - 29세이하는 「경제적 부담」 43.1%, 「시간부족」 41.1%의 비율이 가장 높음
 - 60세이상은 「건강문제」 39.3%, 「경제적 부담」 36.8%, 「시간부족」 12.5%의 순으로 나타남

연령대별 여가생활 불만족 사유(%)



(단위 : %)

구분	만족한 다	만족하 지 않는다	불만족 사유								
			경제적 부담	시간부 족	교통불 편	여가시 설부족	정보부 족	취미없 음	건강문 제	즐길사 람없음	기타
전연령	25.4	21.0	42.1	27.0	1.7	4.8	1.6	2.8	17.6	1.6	0.8
29세이하	28.5	21.7	43.1	41.1	1.9	5.4	2.8	2.3	1.1	1.0	1.3
30-39세	27.2	22.8	44.0	35.7	2.8	7.1	2.1	2.9	1.3	1.7	2.5
40-49세	28.6	21.3	48.5	35.5	1.7	5.5	2.6	2.0	2.3	1.4	0.6
50-59세	27.9	21.0	46.0	35.9	1.3	4.6	1.6	3.2	5.7	1.6	0.2
60세이상	21.7	20.3	36.8	12.5	1.5	3.7	0.8	3.1	39.3	1.8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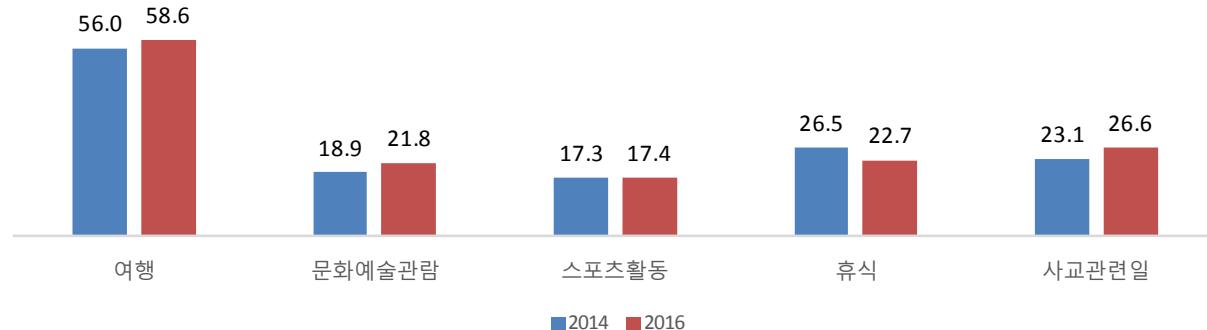
27. 희망 여가시간 활용방법

전체의 절반이상이 시간 및 경제적 여유가 주어질 때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희망

- (향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 경우) 여가활동으로는 「여행」 58.6%, 「사교관련일」 26.6%, 「휴식」 22.7%의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여행」 62.0%, 「스포츠활동」 27.1%, 「사교관련」 23.7% 등을 선호하였고, 여자는 「여행」 55.7%, 「사교관련」 29.2%, 「문화예술관람」 23.6% 등을 선호
- 연령대별로 29세이하는 「여행」 57.6%, 「문화예술관람」 34.1%, 「스포츠활동」 24.7% 순으로 선호하는데 비해 60세이상은 「여행」 49.4%, 「사교관련일」 37.2%, 「휴식」 29.2% 등을 선호함

희망 여가활동(%)



(단위 : %, %p)

구분	여행	문화예술관람	스포츠활동	휴식	사교관련일
2014	56.0	18.9	17.3	26.5	23.1
2016	58.6	21.8	17.4	22.7	26.6
(증감)	2.6	2.9	0.1	-3.8	3.5
남	62.0	19.7	27.1	20.9	23.7
여	55.7	23.6	8.9	24.2	29.2
29세이하	57.6	34.1	24.7	16.0	14.5
30-39세	66.5	30.4	25.8	18.1	16.8
40-49세	67.7	27.9	26.3	17.0	18.1
50-59세	67.4	22.8	20.6	20.0	23.9
60세이상	49.4	13.2	8.2	29.2	3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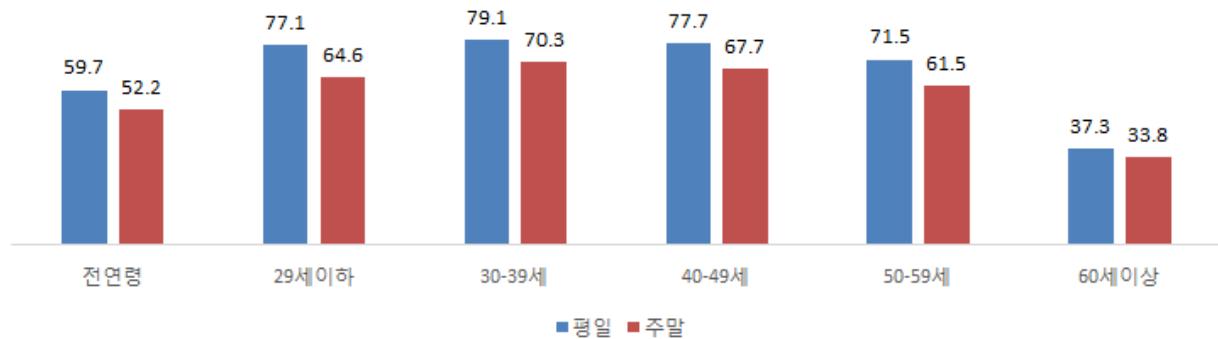
28. 평소 생활속 시간압박의 체감

평소 생활이 바쁘거나 시간부족을 느낀다는 비율은 평일 59.7%, 주말 52.2%로 전체의 절반 이상

□ 평소 생활이 바쁘거나 시간부족을 느끼는 지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일 59.7%, 주말 52.2%로 나타남

- 성별로 남자는 평일 64.7%, 주말 56.1%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평일 55.3%, 주말 48.9%라고 응답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생활속 시간압박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30~39세는 평일 79.1%, 주말 70.3%가 시간압박을 느낀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에 60세이상은 평일 37.3%, 주말 33.8%로 시간압박 체감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평소 생활상 시간압박 체감 (%)



(단위 : %)

구분	평일		주말	
	그렇다	그렇지않다	그렇다	그렇지않다
전체평균	59.7	40.3	52.2	47.8
남	64.7	35.3	56.1	43.9
여	55.3	44.7	48.9	51.1
29세 이하	77.1	23.0	64.6	35.4
30-39세	79.1	20.9	70.3	29.8
40-49세	77.7	22.3	67.7	32.3
50-59세	71.5	28.5	61.5	38.5
60세 이상	37.3	62.7	33.8	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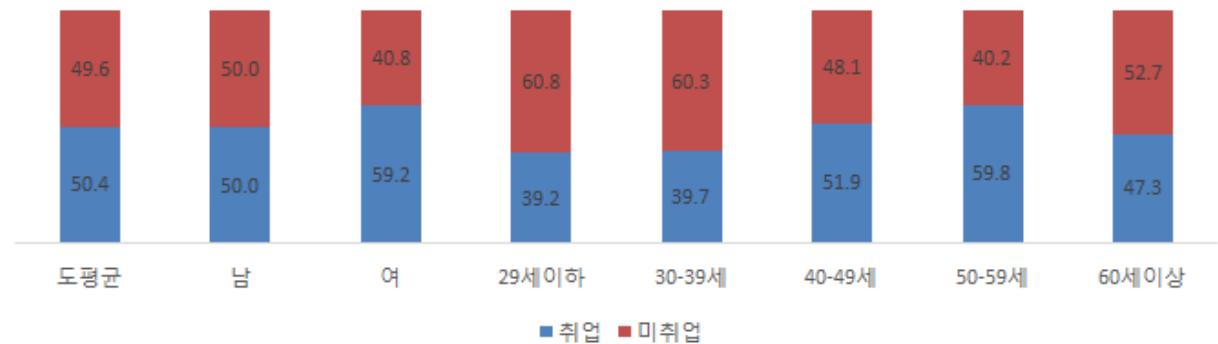
29.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유배우자 인구의 절반(50.4%)은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배우자가 있는 인구의 절반(50.4%)은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배우자의 직업이 있다는 비율은 29세이하 39.2%, 40~49세 51.9%, 50~59세 59.8%로 60대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비율이 올라감
- 자녀부양과 교육 등의 부담이 많은 50대까지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됨

배우자의 경제활동상태 (%)



(단위 : %)

구분	취업	미취업
2015	51.8	48.2
2016	50.4	49.6
남	50.0	50.0
여	59.2	40.8
29세이하	39.2	60.8
30-39세	39.7	60.3
40-49세	51.9	48.1
50-59세	59.8	40.2
60세이상	47.3	52.7
비경제활동상태	20.4	79.6
취업상태	59.1	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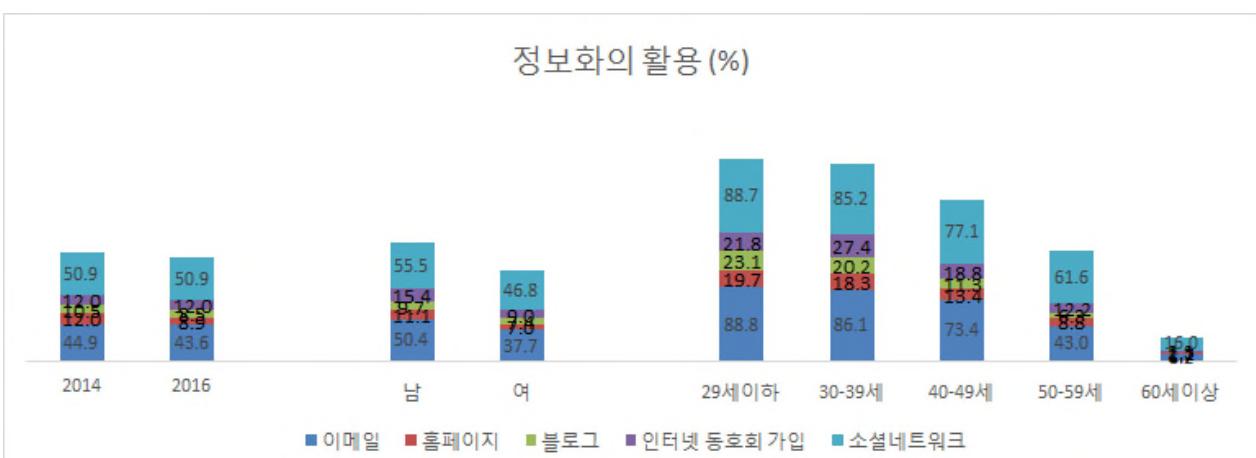
30. 정보화의 활용

도내 인구의 43.6%가 e메일을 사용하고 있고, 인구의 50.9%는 소셜네트워크에 가입된 것으로 나타남

□ 「e메일(을) 보유」한 인구는 전체의 43.6%, 「홈페이지 보유」 8.9%, 「블로그 보유」 8.5%, 「인터넷 동호회가입」 12.0%, 「소셜네트워크 가입」 50.9%의 순으로 나타남.

- 「이메일 보유」는 남자 50.4%, 여자 37.7%로 남자의 보유율이 높고, 연령별로는 29세이하는 88.8%인데 비해 60세이상은 8.2%로 연령이 높을수록 보유율이 낮아짐
- 「인터넷동호회 가입」은 남자 15.4%, 여자 9.0%로 남자의 가입율이 높았고, 연령 대별로는 30~39세가 29세이하를 제치고 27.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셜네트워크가입」은 남자 55.5%, 여자 46.8%로 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29세이하 88.7%로 가장 높고 60세이상은 16.0%로 가장 낮음

정보화의 활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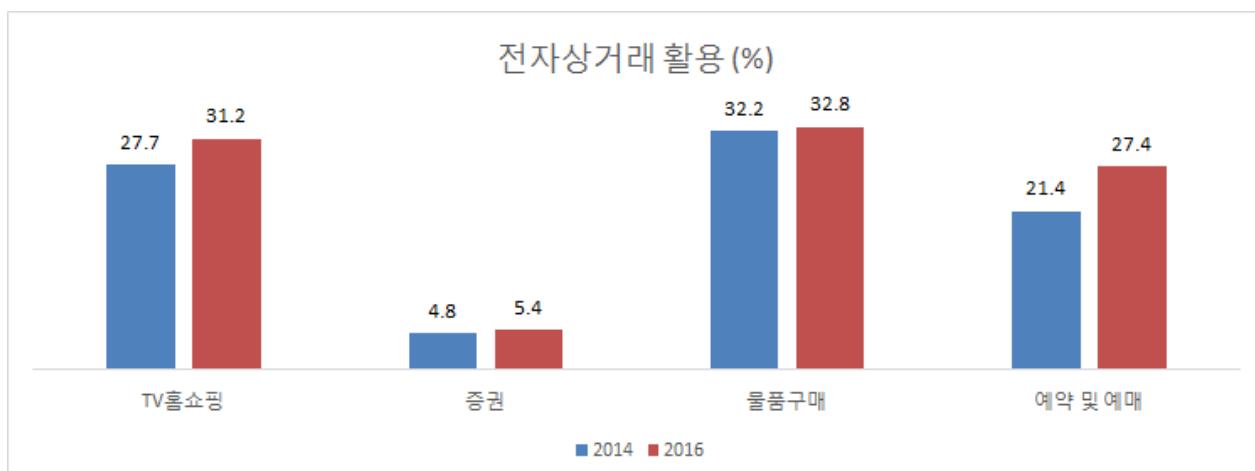
(단위 : %, %p)

구분	이메일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동호회 가입	소셜네트워크
2014	44.9	12.0	10.5	12.0	50.9
2016	43.6	8.9	8.5	12.0	50.9
(증감)	-1.3	-3.1	-2.0	0.0	0.0
남	50.4	11.1	9.7	15.4	55.5
여	37.7	7.0	7.4	9.0	46.8
29세이하	88.8	19.7	23.1	21.8	88.7
30-39세	86.1	18.3	20.2	27.4	85.2
40-49세	73.4	13.4	11.3	18.8	77.1
50-59세	43.0	8.8	6.3	12.2	61.6
60세이상	8.2	1.7	1.1	2.3	16.0

31. 전자상거래 활용

인터넷, 휴대폰을 이용한 상거래 경험인구 비율은 32.8%로 2년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한 전자상거래 경험에 대해 「물품구매」는 전체의 32.8%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어 「TV홈쇼핑」 31.2%, 「예약 및 예매」 27.4%, 「증권」 5.4%의 순으로 나타남
 - 2014년에 비해 「예약 및 예매」는 6.0%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이어 「TV 홈쇼핑」 3.5%p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단위 : %, %p)

구분	TV홈쇼핑	증권	물품구매	예약 및 예매
2014	27.7	4.8	32.2	21.4
2016	31.2	5.4	32.8	27.4
(증감)	3.5	0.6	0.6	6
남	24.3	7.9	31.6	28.5
여	37.3	3.2	33.8	26.5
29세이하	31.1	3.7	59.6	55.3
30-39세	61.5	11.7	70.1	62.5
40-49세	57.3	10.9	57.9	49.3
50-59세	40.1	6.9	32.7	23.4
60세이상	9.1	1.4	5.6	3.6